

A photograph of two deer standing in a snowy forest. The deer in the foreground is facing the camera, while the one behind it is slightly to the right and looking towards the camera. Snow is falling around them, creating a soft, wintry atmosphere.

건강한 삶,
건강한 사회를 위한

해피투데이

01

JANUARY 2013 VOL.29

INTERVIEW

시사프로그램 진행자 **김미화**
길종상가 **박길종**

ESSAY

권대웅의 일상다반詩
도시청년의 자연이용법

값 3,000원



9 772287 364007
ISSN 2287-3643

‘문장의 박물관’에는 지상의 모든 문장들이 은닉되어 있습니다. 시절의 흐름이나 유행에 매끈하게 호응하진 않을지언정, 언제 마주해도 좋을 문장을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따뜻한 문장을 가장 꺼려했다. 따뜻한 문장은 삶을 달관한 듯한 깨달음과 위로로 포장되어 있기가 십상이다. 위선에 가깝다.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삶과 손쉽게 화해해버렸다는 의미에서 패배자의 모습과 비슷한 뒷맛이 남는다. 삶의 녹록치 않음을 분별력 있게 가늠하지 않은 채로, 손쉽게 화해한 태도가 배어나와 속임수와도 비슷한 뒷맛이 남는다. 사랑을 쥐기보다는 사랑을 포장하려는, 그래서 환심을 쉽게 사려는 얇은 상술도 보인다. 따뜻한 문장으로 위로하기란 너무 쉽다. 생은 아름답고 살 만하다는 낙관은 누구나 얻고 싶어 하므로, 따뜻한 문장은 인기 품목이 된지 오래됐다. 그러나 이런 위로는 어딘가 삶과 유리돼 있다. 생이 어찌하여 아름답고 그리고 살 만한지를 알기 위해 치러야 할 지난한 과정을 보여주지 않고 은폐하러 한다. 수많은 사연과 수많은 굴곡이 흘러들고 흘러 나가는 일을 겪으며 우리 삶은 불완전한 채로 완성되어간다. 상처가 나고 용이가 맺혀간다. 그 과정 속에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기도 하지만 우리는 겪은 불행을 더 잘 이해하면서 더 겸손해지고 더 예민해진다. 그리고 성장하고 늙어간다. 그 과정 자체가 삶이고, 삶을 통해서만 우리는 고귀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이 고귀한 경험들은 따뜻한 온도의 문장이 아니라 밀도 높은 문장만이 감당할 수가 있다.



Contents



001 문장의 박물관

004 보헤미안의 편지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줄게 이스라엘

010 다빈치 클럽

코미디언 & 시사프로그램 진행자 김미화

세상사 모든 국면에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

018 미쳐야 미친다

길종상가 박길종 돈 안 되는 재주를 쓸모 있게 재생산한 사람

024 쉼 위 토크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참여하게 사색하다 영화 <새끼 여우 헬렌>

030 따뜻한 인터뷰

동물자유연대 대표 조희경 동물복지는 결국 사람복지와 연결된다

036 권대웅의 일상다반샹

전생을 기억나게 해주는 향기

040 도서관 여행자(국외)

브레멘 시립도서관

044 도서관 여행자(국내)

남양주시 '나와유 책방'

046 동물나라 주민센터

사자

048 시대의 옷장

'더 짧게, 더 짧게' 미니스커트 레볼루션

050 미식가 열전

방신영, 한국 최초로 근대식 요리책을 낸 여성





054

수려한 유숙

비움과 채움을 새로 배움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060

도시청년의 자연이용법 ①

문 없는 카페로 들어가자

066

임연두의 여행탐구생활

겨울밤, 방 안에서 영화로 지구별 여행하는 법

068

김준의 카툰

물건 이야기

072

유성용의 생활의 안부

12월의 니앙스

078

자연에서 길을 찾다

지구라는 거대한 부엌에서 미생물의 집을 짓는 사나이

미생물 농사꾼 우태영

086

최현정의 예코 만화

4°C

092

고은태의 동상이몽

새해 계획의 진짜 역할

096

길 위에 남긴 북자국

정선 가는 길

098

송기춘의 법 이야기

대통령제의 조건

100

홍태수의 마음에세이

새로움

102

권도갑의 마음산책

자녀문제를 마음공부로 해결하다

104

도올 소설(小説)

무지와 애욕으로 생사의 굴레를 헤매다 (1)

보헤미안의 편지

글과 사진 이희인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줄게

이스라엘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친구가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나는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너의 형제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윤복희 <여러분> 중에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노래방에 가지 않고 살기란 힘이 듭니다. 게다가 일단 노래방에 가면 제 아무리 노랜 안 하겠다고 못을 박아봐도 떠밀려오는 마이크를 잡지 않기란 힘이 듭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노래방에 가면 부르는 곡이 <여러분>이란 노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줄게’ 하며 시작하는 그 노래. 그 어려운 노래를 노련하게 잘 불러서 고른 게 아니라 처음부터 노래방엔 마치 그 노래밖에 없다는 듯 버릇처럼 불렀습니다. 얼마 전 TV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유명 가수가 부른 뒤로 이 노래는 더욱 많이 알려지고 사랑받는 듯합니다. 그 가수가 워낙 열창을 해서인지 나만의 노래인 양 소중히 아끼던 노래를 빼앗긴 것 같아 더 이상 <여러분>을 부를 마음이 나지 않습니다. 노래방으로 가는 발걸음은 더욱 꺼려지기만 합니다.

지금은 특별히 믿는 종교는 없지만, 어린 시절엔 동네의 교회에 다녔습니다. 신앙심이 높아서라기보다는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교회가 학교와는 다른 즐거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재미있었던 것은 성경책 속에 알일이 박힌 아주 흥미롭고 신비로운 이야기들입니다. 천지창조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아담과 이브, 아브라함, 노아, 모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등의 행적이 담긴 그 책은 어린 저에겐 너무 난해하게 다가왔지만, 이후 접했던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책이나 성탄절 TV에서 틀어주는 영화들, 성서 속 인물들의 기적 같은 이야기들은 어린 맘에 꿈과 환상을 심어주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모세가 자신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40여 년간 광야를 누비다가 찾아간 ‘젓과 꿀이 흐르는 땅’ 가 나안에 대한 환상도 생겼던 것입니다.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알렌비 국경 검문소를 넘어가면 바로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땅입니다. 그러나 이집트를 떠난 모세의 백성이 쉽사리 그 땅을 넘을 수 없었듯이, 여행자가 그 국경을 넘는 것도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중동의

화약고’라 불리는 이 땅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아주 끔찍할 정도로 모멸감이 느껴지는 입국 소속을 받아야 합니다. 귀국 항공편을 보여줘야 했고 가지고 있는 돈을 몽땅 보여줘야 했으며 ‘먼저 다녀온 시리아나 레바논엔 왜 다녀왔냐’는 등의 집요한 질문에 시달렸는가 하면 쓰고 있던 여행 일기마저 빼앗길 뻔했습니다.

국경 검문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버스로 1시간이 채 되질 않습니다. 느림하게 자리 잡은 예루살렘 성곽 안으로 발을 들여놓자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 생전의 세상으로 거슬러 올라간 듯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가판의 물건, 소란스러움 등이 모두 동화 같은 느낌을 자아냅니다. 성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 총독에게 심판을 받아 십자가를 짊어지고 마침내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까지 고난의 길을 걸어난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책 속 상상의 장소보다 훨씬 짧고 아담한 길이지만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그 성소들은 늘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이튿날은 아기 예수의 탄생지라는 예루살렘 외곽의 베들레헴에 갔고, 그 다음날은 어린 예수가 지혜와 건강을 키워온 나사렛 마을과 제자 베드로를 만난 갈릴리 호수를 찾아갔습니다. 나사렛 마을의 아이들을 보며 이천 년 전 성인의 어린 모습을 상상해보았고,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들을 보며 어부였던 베드로의 삶도 떠올려보았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국토가 훨씬 작은 이스라엘은 옮겨 다니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알알이 박힌 지명들을 찾아 떠다니는 여행은 흥미롭고도 즐겁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어디를 가도 총을 든 군인들과 삼엄한 검문검색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20세기 초까지 수천, 수백 년간 이 땅에 살던 팔레스타인인들을 쫓아내고 유대인들이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은 견잡을 수 없는 테러와 폭력이 난무하는 중동의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인들의 주거지를 둘러싼 높다란 콘크리트 장벽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한 비인간화의 상징물이기도 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한 곳으로 알려진 베들레헴의 한 교회 역시 십여 년 전 끔찍한 폭력과 학살이 있었다고 합니다. 평화와 사랑을 선포한 성인이 태어난 성지치고는 너무도 암담하고 모순된 풍경이었습니다.

노래방에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이란 노래를 종종 흥얼거립니다. 누군가 외로울 때 손을 내밀어주는 것, 친구가 되어주는 것. 어쩌면 그것이 종교의 본질이며 실천이 아닐까요? 지금은 비록 크리스천이 아니지만 성인이 설파했던 가르침을 추구하는 마음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새해에는 세상에 사랑과 평화가 더 많아질까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42

필자소개 **이희인** 공식적 직업은 카피라이터, 비공식적 직업은 여행가. 언제부터나 자신의 카메라가기가 막힌 풍경보다는 사람들의 변화무쌍한 표정을 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지은 책으로는 <현자가 된 아이들>, <여행자의 독서> 등이 있다.

세상사 모든 국면에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

개그맨이라는 현대적인 직함보다는 코미디언이라는 용어가 더 어울리던 시대에 코미디언으로 이름을 널리 알렸으나, 어느 순간부터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로서 명성을 떨치더니 신문 정치면에도 이름이 오르게 되고 급기야는 방송사와 소송전도 불사해가며 시대를 뜨겁게 살아가고 있는 김미화. 이 사람에 대해 말이 많다. 연예인이기도 하면서 정치에 가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방송을 통해 늘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자세한 삶의 속내는 잘 드러나지 않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이 사람을 직접 만나보자.

김미화에 대한 오해, 그는 좌파인가?

원래 코미디를 하셨는데 어떻게 시사프로그램 진행자가 된 건가요?

처음 PD 한 분이 찾아와서 시사프로그램 진행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전 신문조차도 잘 안 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피해 다녔죠. 전 대중연예인이잖아요. 시사프로그램을 하는 순간 대중으로부터 호불호가 나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잘 알고 있었죠. 내가 왜 그 호불호 가운데 있어야 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PD분이 정말 집요하게 설득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 넘어갔어요. 제가 원래 사회복지 쪽에 관심이 많아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일을 거들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PD분이 그러는 거예요. “몸으로 뛰는 사회복지도 좋지만, 전국으로 나가는 방송에서 미화 씨 목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게 더 큰 사회복지가 될 수 있어요.” 거기에 딱 넘어간 거죠.

그런데 이게 돈이 안 되는 일이에요. 라디오 방송은 매일 하는 거라서 몸이 매여 있기 때문에 통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저녁 시간대는 모든 행사가 있는 시간대라서 연예인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다른 데에 쓰기가 쉽지 않죠.

원래 평소에도 비판의식을 가지고 계신 편이었나요?

전혀 아니라니까요. 정의감? 그런 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학창시절에 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괴롭히던 친구들을 혼내준 적이 있고, 그 장애를 가진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서 그 친구 어머니가 절 굉장히 아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애들하고는 아무도 안 놀아주잖아요. 전 그 친구한테 그렇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뭐 그런 정도? 제가 사회적으로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다만, 제가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고, 그런 단체들에서 조금씩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A full-page photograph of a woman walking towards the camera on a dirt path covered with fallen autumn leaves. She is wearing a light-colored trench coat over a red and black patterned scarf and blue jeans. The background is a lush park with trees showing early autumn foliage in shades of green and yellow. A large tree trunk is visible on the right side of the frame.

코미디언 & 시사프로그램 진행자

김미화

했어요. 호주제 폐지라든지, 이라크 파병 반대 1인 시위에도 참여를 했고, 영화인들이 하는 스크린쿼터제 관련해서도 참여를 했었죠. 아마 그런 저의 행동들이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되는 데에 밑거름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련의 행위들이 좌파 낙인이 찍히게 된 계기를 제공했죠. 그런데 이런 게 좌파인가요? 전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시잖아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나요?

글쎄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어떤 노동자가 철탑 위에 올라가서 시위를 하고 있다고 쳐요. ‘저들은 귀족노조?’ 이렇게 회사 측 입장에서 바라볼 건지, 아니면 ‘저분들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는 건지, 왜 철탑 위에 올라갔어야 했는지, 왜 저런 극단적인 행동을 해야만 했는지, 저분이 혹시라도 뭔가 나쁜 판단을 내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것인지. 그런 거죠. 세상사 모든 국면에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꼽자면, 너무 빨리 달려가는 것들에 대해서 한 박자쯤 느리게 생각해보는 것?

오프라 윈프리를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엄청난 권력이란 걸 알고 있어요. 2시간 동안이나 이런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 정치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온갖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따져 물을 수 있는 이 자리. 마이크의 힘. 이걸 사회를 바꿀 수 있거든요. 마이크를 가진 사람이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묻는 순간 ‘이게 잘못된 건가’ 하며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생각을 검증하기 시작하죠. 전 정치인이 된다거나 해서 뭔가를 직접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 이 마이크의 힘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가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서 선한 행동을 하잖아요. 무슨 달리기 이벤트를 하면서 기업을 끌어들이어 어려운 사람들과 연결해준

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오프라 윈프리는 이름 알려진 사람들을 행동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말뿐 아니라 실제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TV라는 게 그렇잖아요. 누가 세종대왕 역을 해서 알려지게 되면 그 사람이 세종대왕의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처럼 역할 맡은 배우는 세종대왕답게 행동을 하게 되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인들의 사회참여가 화두죠?

그런데 외국의 경우엔 그 수준이 달라요. 이번에 미국에 태풍 왔을 때만 봐도 오바마가 복구현장으로 가서 팔을 걷어붙이고 일했잖아요. ‘오바마 같은 총책을 맡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건 고귀한 재능과 책무의 낭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재난을 당한 시민의 상황을 겪어봐야 실질적인 구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인터뷰 할 때 얘기하잖아요. “오바마가 우리와 함께 있었다” 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사진만 찍고 가는 거죠. 누가 거기 하루 종일 있어요. 서너 군데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죠. 농촌현실? 하루 체험하는 것 가지고는 턱도 없겠지만, 하루 정도는 거기 가서 있어 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유명인들이 누가 그래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왜? 안 하면 욕을 먹어요. 사진만 찍고 가면 욕을 먹어요. 그런 걸 오프라 윈프리가 끌어내는 거예요. “야! 스티븐 스피버그, 너 왜 여기 어려운 일 있는데 안 도와줘? 너 당장 와.” 그러면 그 천하의 스피버그가 와서 돕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남을 돕는 게 상식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상식이라고요. 부자들이 자진해서 “요즘 사회 어려운데 우리 세금 올려다오. 정부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우리 세금 더 내고 싶다” 이러잖아요. 모여서 무슨 선언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존경스러운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연예인? 코미디언? 아, 웃기지 말라 그래. 넌 코미디나 해. 코미디언이 코미디나 하면 되는 거지, 네가 무슨 쌍용자동차 문제? 강정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로서의 시각이요?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왜 저런 행동을 해야만 하는지
이렇게 세상사 모든 국면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고도 애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꼽자면 너무 빨리 달려가는 것들에 대해서
한 박자쯤 느리게 생각해 보는 것이예요.”

김미화





책 <웃기고 자빠졌네> 中
 뒷박 안에 한 송이 꽃을 그려 넣었다.
 그리고 얼마 전 한 월간지에 실린 내 사진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슬픈 표정의 빼에로 사진이었다.
 사진 속 나를 오려내서 뒷박 안에 앉혔다.
 뒷박에 갇힌 빼에로가 의아한 듯 밖의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문제? 네가 무슨 정치인이야? 그거 정치적인 행위잖아!
 이렇게 얘기들 하죠.

김미화 씨가 유독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죠?

‘너, 그렇게 행동하는 거 나중에 정치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런 얘기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어요. 그런데 정치판에 나가려면 벌써 오래 전에 나갔겠죠. 실제로 그런 제안도 많이 받았어요.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많이

제안이 왔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행복한 일일까 따져봤을 때, 전 전기자로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에 만족하고, 사람들이 제게 원하는 것도 그것이라고 생각하지 다른 욕심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걸 정확하게 알아요. 트위터를 보면서 많이 느끼죠. 누가 어디에 갔다 하면, 그걸 정확하게 알아요. 표시 내려 갔는지, 진정으로 어떤 생각에서 갔는지 정확하게 안다고요.

날 때부터 코미디언인 사람

어릴 때 공부를 잘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공부 못했죠. 안 했어요. 아우, 꼴찌에서 왔다 갔다 했죠. 그냥 코미디밖에 몰랐죠. 저는 여섯 살 때부터 코미디언이 되고 싶었어요. 코미디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거죠. 서영춘, 배삼룡 선생님이 제겐 스승이었죠.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쳐주시는 걸 무지하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쪽으로는 신동 소리 들었겠는데요?

신동이었죠. 제가 안 가면 학교 소풍이 안 될 정도였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 집을 찾아가다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저 감밥을 못 써서 내일 소풍 못 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펄쩍 뛰시면서 “아, 네가 안 가면 우리 소풍 가서 오락회를 어떻게 하나. 선생님이 도시락 네 것 싸갈 테니까 꼭 가야 된다” 그러셨다는 거 아닙니까. 제 도시락을 선생님이 싸주셨어요. 제가 앞에 나가서 애들 한번 웃기면 조용필 지리 가라로 ‘까악’ 소리가 나왔어요. 학교의 우상이었다니까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코미디언이 되었으니까 전 지금까지 평생 그것밖에 생각한 게 없었어요.

우리나라 코미디 발전에도 어느 정도 공을 세웠다고 생각해요.

심형래 씨 옆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거, 배삼룡 선생님 옆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거, 이젠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자기 다리로 자기 다리를 걸어서 옆어지는 거예요. 그걸 자연스럽게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저도 이불 깔아놓고 얼마나 많이 해봤게요. 그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와,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막 연구하다가 진이 빠지곤 했죠. 그리고 서영춘 선생님 하는 거 있잖아요. ‘가갈갈갈갈’ 하면서 불 흔드는 거. 이런 거 개발하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이거 대단한

건데 사람들이 왜 몰라줄까?’ 안타까워만 했죠. 코미디 저질 시비가 한동안 있었잖아요. 제가 코미디언이 됐을 때 그 중심에 딱 서 있는데, ‘코미디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개그콘서트>를 만든 것이 그 고민의 결과였을까요?

드라마 연기자들 보면 나이가 들어도 자기 할 역할을 잘 맡잖아요. 할아버지가 되면 할아버지 역할, 할머니가 되면 할머니 역할. 그런데 코미디 쪽엔 그런 게 단절되어 있어요. 사실 제가 <개그콘서트>를 만든 이유도 그런 거였어요. 그 단절된 것을 이어보고 싶다는 거요. 전 <개그콘서트>를 통해서 새로운 젊은 피를 수혈해가면서 코미디가 계속해서 발전해나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게 잘 안됐어요. 방송국의 상업성이 얼마나 철저한 것인지 잘 몰랐던 거죠. <개그콘서트> 인기가 폭발하니까 방송국에서 <개그콘서트>의 연기자들이 다른 프로그램 못하도록 딱 막아버린 거예요. 요것만 잘되면 된다는 식이었죠. 젊은 신인 연기자를 데려다가 하니까 출연료 싸쑈, 무대세트도 간단하니까 돈 안 들쑈. 방송사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잘되면 된다는 거예요. 출연료 비싼 고참 연기자들은 결국 안 쓰게 되고, 세트 많이 들어가는 코미디는 안 하게 됐던 거죠. 제가 그런 방송국의 생리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전히 코미디를 중심에 두고 계신가요?

사람들은 나이 들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후배들 자라도 만들어주고 뒤를 봐주게 되죠. 부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그런데 전 뒷방에서 ‘너 이렇게 해라’ 후배들 인생에 관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전 무대에서 뛰고 싶은 욕심이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됐을 때도 건강만 허락된다면 하고 싶어요.

김미화란 사람의 삶

최근에 출간하신 <웃기고 자빠졌네>를 보니 '뒷박 속 피에로'란 작품이 있던데요. 뭔가 슬퍼 보이는데 글에는 '광대 짓 할 때가 가장 행복한 나'라고 쓰셨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아직도 나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를테면 사람들이 좌니 우니 하며 재단하는 것과 같은 것 말이지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은 한 번 그렇게 생각하면 계속 그렇게 비난을 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 속에 나는 갇혀 있다는 얘기였어요.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두고 계신데 재혼하실 때 고민이 되진 않으셨나요?

아니, 전혀요. 겁은 났어요. 친엄마 이상으로 내가 잘 보살필 수 있을까. 그럴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아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모습, 자기가 죽고 나면 저 아이를 누가 돌봐주나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는 걸 보면서, 전 그저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다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진 않았나요?

어렵지 않았어요. 재혼 가정의 원래 아이들 문제가 제일 큰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엔 아이들이 이미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컸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과 문제가 없게끔 미리 조절을 잘했죠. 네명의 아이들이 한 집에서 있지 않고, 기숙사에 들어간다든지, 외국에서 공부를 하게끔 한다든지 하면서 안배를 잘해서 그런지 아이들끼리 서로 좋아하고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도 잘하고요.

쓰신 책이나 인터뷰들을 보면 남편분이 거의 성인군자시던데요?

사람들은 나이 들면 뒤로 물러나거나 높은 자리에 앉게 되죠. 전 뒷방에서 후배들 인생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전 무대에서 뛰고 싶은 욕심이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됐을 때도 건강만 허락된다면 코미디를 하고 싶어요.



성인군자는 아니지만 정말 한 치의 가감 없이 말해서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재혼에 대해 많이 망설였는데요. 그 전에 딸 둘 데리고 친정엄마랑 함께 살았거든요. 그게 너무 좋더라구요. 내가 다시 엄마의 딸로 돌아간 느낌. 우리 엄마가 뒷바라지 다 해주시고, 아이들도 행복해하고, 그렇게 여자 넷이서 참 좋았어요. ‘아,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다’ 하면서 행복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혼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다시 지겨운 남자란 존재하고 생활하면서, 저 남자 뒷바라지를 해야 하나’ 하는 불안감 같은 게 생기더라구요. ‘과연 저 남자는 믿을 만한가. 저 남자가 지금은 이렇게 좋아도 결혼해서 살다 보면 또 숨겨진 본성이 나오겠지, 그 본성이 얼마나 날 괴롭힐까’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결혼한 지 8년 접어들지만, 해마다 감사해요. 마치 잘 맞는 신발을 신은 것처럼 너무 편안해요. 책 쓸 때도 주변에서 ‘남편 자랑 좀 하지 말라’고 해서 조심하면서 썼는데도 그 정도예요.

연예인들은 방송에 나와서 다들 행복한 척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믿죠.

옛날엔 저도 그랬어요. 내가 가진 걸 놓고 싶지 않아서, 방송 못할까 봐,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싶지 않아서 숨기며 산 세월이 19년이잖아요. 그게 가장 후회스러워요. 가장 찬란했어야 하는 그 시절을 왜 내가 그렇게 바보스럽게 살았던 걸까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그냥 제가 저의 소소한 생활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들이예요.

힘든 시절도 보내셨지만, 지금은 참 행복해 보이세요. 바람이 있다면요?

장애가 있는 우리 큰아이가 장가를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장애가 있다 보니까 여자친구 사귄 기회 자체가

없죠. 정말 평생 동안 한 여자만 사랑하고 살 착한 아이인데, 사람들은 그냥 바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가 나이는 스물이 넘었지만, 열 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열 살 정도의 지능이란 게 사실 살아가는 데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거든요. 기쁜 일 있으면 기뻐하고 슬픈 일 있으면 슬퍼하고 동생이 무슨 일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이 녀석은 그냥 딱 소년의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음악에 재능이 있어요. 하루 종일 음악만 하죠.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요? 제가 소망하는 건 이 아이랑 잘 맞는 짝이 나타났으면 하는 거예요. 같은 장애를 가진 친구라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도 오래 했는데요. 장애를 가진 부부가 사는 걸 여럿 봤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만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결혼한 후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대부분 상대방에게 바라는 게 너무 많아서 생기는 것이거든요. 기대에 못 미칠 때 실망하고 싸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장애 부부에게 그런 문제가 없어요. 증증 장애가 있어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부품 조립만 하고, 그래서 한 달 월급이 8만 원 정도밖에 안되더라도 이들에게 불만이 없어요. 어쩌면 정말 행복한 인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세상에 못된 남자, 못된 여자 만나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미쳐야 미친다

인터뷰 김은성
사진 김재룡

돈 안 되는 재주를 쓸모 있게 재생산한 사람

길종상가
박길종



“나는 돈 안 되는 일만 잘해”라고 자조하는 한 사나이를 알고 있습니다. 주 전공은 만취한 친구 안전하게 업어 집에 데려다주기, 부전공은 버리는 나무토막을 손사포로 일주일간 갈아 목걸이 만들기. 공기가 건조하면 물티슈를 이용해 휴대용 가습기를 똑딱 제작하는가 하면, 상추를 씻다가 발견한 초록벌레에게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기도 하는 사람. ‘길종상가’에 다녀온 날, 그 사나이에게 격려의 전보를 치고 싶어졌습니다. ‘자네가 보유한 것 같은 잉여력으로도 나름의 시스템을 만들어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겠더군.’ 그러니까 조금만 더 주위를 세심히 둘러보면 쓸모 있는 것들이 눈에 띄고, 그것을 잘 응용하면 생각보다 쉽게, 멋스럽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박길종을 보며 들었습니다.

길종상가의 이해 **체력과 노동력과 상상력을 그러모아 탄생된 물건과 작업들**

한가한 이는 초조해하고, 바쁜 이는 바빠 죽겠다고 하는 다이나믹 코리아에서 이태원 ‘박가이버’ 박길종 씨처럼 즐겁게 바쁜 이는 보기 드물다. 그럼 어디, 길종 씨의 뒤를 한번 밟아볼까. 아침나절, 701호 ‘견다 사진관’의 ‘사진관’ 씨로 분한 길종 씨는 골목을 산책하며 나뭇잎 구멍으로 비쳐든 동그란 햇살과 세모나게 깨진 창문을 발견하고 서둘러 셔터를 누른다. 카메라는 유용한 아이디어 채집기! 동네백수 아니냐고? Never. 작업실에 들어선 길종 씨는 101호 ‘한다 목공소’의 만능 목수로 변신하여 채집해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가구를 디자인한다. 몇 주간 잡고 있던 ‘회의용 밀당’을 오늘까지 마무리해 배송할 수 있을 것 같으며 조금은 설렌 기색을 비치는 길종 씨. ‘회의용 밀당’은 ‘회의도 하고 가끔은 식사도 할 수 있는 다용도 테이블’의 새 이름이니, 길종 씨는 유능한 작명가이기도 하다. 테이



블의 상판은 '밀면 밀리고 당기면 당겨지는' 밀당(슬라이딩)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다만 널따란 상판이 엘리베이터에 다 들어가지 않아 5층까지 테이블을 옮기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한편 조금 걱정이 된다고 그는 말한다. 그 와중에 전화벨이 울린다.

“간다 인력사무소죠? 친구 결혼식 갈 때 파트너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키가 몇이예요? 얼굴은 준수한 편인가요?”라는 수화기 저편 아가씨의 물음에 “키도 외모도 보통입니다”라고 담담히 답한 후 ‘이 건은 나가리군…’ 중얼거리는데 벨이 또 한 번 울린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요. 비닐 붙여주실 수 있어요? 급해요. 너무 추워요”라는 단말마가 들린다. 갑작스레 독립하게 되어 생활의 소소한 잡무를 배우지 못한 자취생들에게 그는 생활의 멘토이자 해결사가 되어준다. 그는 센서등과 하수관을 수리해주는가 하면 인터넷과 도시가스 설치를 돕는다. 빈집에 들러 사흘간 고양이의 밥과 모래를 책임진 후 받은 스물여섯 장의 속옷은 가장 기록할 만한 수고비. 비닐 붙이기의 수고비는 아마도 삼겹살 3인분 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지금처럼 협업자인 김지만, 유익점이 없을 때에는 길종상가의 한 부서라고 말할 수 있는 ‘한다 목공소’ 일에 미쳐 종일토록 말 한 마디도 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고 한다. 그때부터 동네 산책을 하면서 이웃 사람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건 말없이 혼자 일하던 그의 기분 좋은 버릇이 되었다. 정작 본인 집은 바빠서 정리가 안 되고 있지만, 1분 1초가 재미있고 쓸모 넘치니 괜찮다. 시간과 체력, 그리고 상상을 그러모아 자신의 오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길종상가’. 그것이 그의 일이자 일상이자 취미이자 직업명이다.

명예보다 중요한 것 하고 싶은 일로 먹고 산다는 것



종합상가 ‘길종상가’의 창립일은 2010년 12월 24일, 예수의 탄생일과 같은 날이다. 시장과 극장과 악기상과 카바레가 공존하는 낙원상가 돌아다니기를 취미로 삼았던 청년 박길종은 낙원상가처럼 멋진 복합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다. ‘당장 실현할 수 없다면, 일단 상상하면 되겠지!’ 고민이나 고충은 그다지 없었다. 동네 친구로부터 분양

받은 홈페이지에 ‘길종상가’라는 이름을 붙이고 뚝딱거리기 시작했다. ‘이름을 걸고 믿음을 드리기 위해’ 자신의 본명도 내 걸었다.

“대학에선 서양화를 전공했어요. 미술 작가의 어시 생활도 좀 했지만 그 세계가 전혀 재미있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회사에 입사하기는 싫었고요. 모든 사람이 토익 토플을 공부해 취업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종일,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스스로 밥을 버는 게 어떤 명예보다도 중





요하다'고 생각해온 길종 씨는 우선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한다.

“2009년 2월부터 일 년 동안 DIY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원래는 창고 정리나 단순 업무를 하러 간 건데요. 새로 생긴 회사다 보니 다양한 일을 하게 됐어요. 사장님이 손재주가 좋으셔서 가구 만들기과 전기 설치, 미장 등을 하셨죠. 시대로 따라다니며 어깨너머로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어요.”

여름이면 화단의 풀 뽑기까지 했던 실로 '홍반장'스러운 만능알바 시절은 '길종상가'의 귀한 전신이 됐다. 그동안 해온 결과물들을 이용해 목공소, 사진관, 조명 등의 상점을 '길종상가' 안에 입점시키기 시작한 길종 씨. 그의 말을 빌리면 '살아오면서 배우고 느끼고 겪어온 모든 것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이나 인력을 제공하는 곳'이 '길종상가'의 정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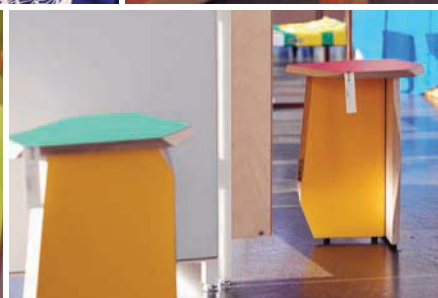
그러나 못하는 게 없는 길종 씨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으니 바로 가격 책정이었다. “한다 목공소의 가구를 보고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비싼 게 당연해요. 세상에 하나뿐인 가구들이니까. 작품에 대한 자존심이나 그런 게 아니고요. 재료비와 인건비, 배송비, AS비 등이 합쳐지면 이 가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렵게 익힌 기술에 대한 대가이기도 하고요. ‘있다 만물상’의 물건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성품이긴 하지만, 구석구석 발품 팔아 힘들게 구해온 제품들이니까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죠. 가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판매하면 저희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려는 후배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은 연결된다 아이디어와 소재와 사람

1년가량 온라인으로만 운영되던 '길종상가'는 올해 봄 이태원 이슬람사원 근처에 실제 상가를 오픈했다. 그 과정에서 '판다 화랑'의 송화백 씨, '웨다 식물점'의 유익점 씨, '있다 만물상'의 김다만 씨가 길종상가의 새 식구가 됐다. “마침 1+1 공연 티켓이 생겼고 서로의 친구를 통해 공연을 보며 만나게 됐어요. 사람과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거죠. 그때는 같은 상가에 있게 될지 전혀 몰랐어요.”

각자는, 각자의 일을 한다. '있다 만물상' 김다만 씨가 프랑스풍 빈티지 원피스들을 모아 장을 여는 사이, '웨다 식물점'의 유익점 씨는 난로에 그을려 구워 난 패딩점퍼를 맡아 불조심의 의미를 담은 그림 천을 오려 꿰맨다. 홍보에 능한 길종 씨가 SNS며 홈페이지 관리 등을 주로 맡고 있지만 그렇다고 상가의 대표인 것은 아니다. 그도 협업하는 동반자들과 함께 '박길종'이라는 상가의 대표를 공유하며 낙원상가 안에 웅기증기 모인 상가들처럼 자내고 있





는 것. 간혹 공동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면, 아이디어를 건져 올리고 모두가 합의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잡담을 나눈다. “해보면 재미있겠지, 재미있으면 계속하지, 뭐”라는 마인드가 닮은 친구들이기에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 분업과 협업의 가장 편안한 교집합 속에 있는 멤버들이다.

앞으로 '길종상가'는 더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공간에서 쉽게 만나기 위해 '이동식 길종상가'로 운영된다. 첫 번째 이동상가는 A-LAND 홍대점 5층. 작은 서점 '더 북 소사이어티'와 함께 팝업 스토어 형태로 입점했다. 얼마 전 '길종상가'는 인디 레이블 '헬리콥터 레코즈'와 디자이너 신동혁 씨와 연계하여 <듣거나 말하거나 마시거나>라는 행사를 주최했다. 아이디어와 아이디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며 '길종상가'의 활동범위는 나날이 넓어지고 있다.

“사람들이 기존의 방식을 지나치게 답습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보면 지금의 생활방식과 룰, 법과 국가 시스템은 과거의 누군가가 만든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따르기만 하면서 고쳐나가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사회의 기존 시스템을 따라가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재밌으니까 이런 걸 하는 거겠죠? 물론 기존의 체계를 완전히 무시할 순 없으니 사업자 등록증도 냈지만, 기존의 것들을 활용하면서도 이리저리 비껴 나갈 계획이에요. 즐거운 일을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길종상가 www.bellroad.1px.kr

셀 위 토크

인터뷰 정시우

사진 김재룡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참여하게 사색하다



영화 <새끼 여우 헬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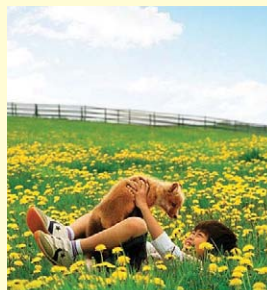
패널: 뮤지션 & 뮤지컬배우 배다해, 작가 이주희

<혹성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인원이 인간을 다스린다는 이 기발한 설정의 영화는 인간의 근거 없는 우월의식에 경고장을 던집니다. <새끼 여우 헬렌>은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바라봅니다. 영화는 어린 소년과 새끼 여우의 우정을 통해 인간과 동물은 교감하고 공존해야 하는 동반자라고 말합니다.

여우 헬렌은 야생동물이긴 하지만 여러 면모에서 유기견이나 반려동물을 떠올리게 합니다.

배다해 사실 전 이런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동물보호 운동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 제 삶이 이미 그런 생명들로 인해 너무 고달프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서까지 힘들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보면서 화가 났어요. 감정이입을 안 하려고 노력했죠. 왜냐하면 너무 우리들의 이야기 같았으니까. 저도 생명을 돌봐주다가 보낸 경험이 네 번 정도 있어요. 한 번은 차에 치인 새끼 비둘기를 데리고 왔는데, 날갯짓 한 번 못하다가 삼 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식으로 보낸 것만 네 번이예요. 강아지, 비둘기, 고양이... 그러다 보니 영화를 보는 게 힘들었어요.

이주희 영화적으론 보면 연기도 연출도 아트도 조금씩 이상해요. 지루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생각해볼 만한 화두를 던져주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일단 영화에는 학교에서도 집에서든 적응 못하던 꼬마 타이츠가 여우와의 교감을 통해 성장한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타이츠의 엄마도 이 과정을 통해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건,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앵무새였어요. 시도 때도 없이 “살려줘, 살려줘” 노래하는 앵무새를 두고, 수의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인간의 감정에 휘둘려 살다 보니 저렇게 됐다고. 슬프면서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실제로 동물을 물건처럼 키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자기 만족하려고 강아지를



<새끼 여우 헬렌>

수의사 다케다츠 미노루가 1999년 발간한 에세이를 영화화한 작품이다. 소년 타이치는 도로변에 웅크린 채 떨고 있는 새끼 여우를 발견한다. 여우를 집으로 데려온 타이치. 여우가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타이치는 안락사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수의사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 타이치는 여우에게 ‘헬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보살피기 시작하지만 헬렌의 건강은 점점 악화해간다.



배다해 뮤지션 & 뮤지컬배우

염색시키는 것도 그중 하나죠.

배다해 그런 부분은 좋았어요. 하지만 눈물을 위한 연출이 너무 많았다는 게 아쉬워요. 생명을 다룬 영화는 조금 더 생생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감동을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반성을 일으키거나 깨달음을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람과 동물이 교감하는구나' 정도는 다들 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템플 그랜드>이라고 자폐증을 극복해가는 여성의 실화를 그린 영화를 추천해요. 이 작품은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굉장히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실제 주인공 템플은 현재 동물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데, 그분은 소를 덜 고통스럽게 도축장으로 이동시키는 농장 시스템을 고안했어요.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소를 도축장으로 보내야 한다면 최소한 공포에 질려 이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하고 있죠. 그 영화는 자폐아들에게도,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교훈과 희망을 줘요. 그런 영화가 더

필요해요. 감동적인 이야기는 이제 충분히 나왔잖아요. <새끼 여우 헬렌>이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새겨들을 만한 좋은 메시지를 너무 안이하게 흘려보내고 있으니까.

이주희 이 영화를 두고 '훌륭하다/훌륭하지 않다'를 따지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 눈물 한번 빼 봐라.' 이걸 걱정하고 만든 영화잖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봐왔던 영화 중에서는 메시지가 적절하게 잘 들어간 경우라고 봐요. 서툴긴 하지만요.

이 영화에서 '타이치가 헬렌을 키웠지만 헬렌도 타이치를 키웠어'라는 대사가 인상적이었어요.

이주희 맞아요. 얼마 전에 아기를 낳은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기를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몇 살 때부터 죄를 짓게 되는지 궁금해진다고요. 순수했던 인간은 커가면서 그 본성을 잊어버리잖아요. 반면 동물들은 처음 본성 그대로를 지니고 살아가죠. 그런 동물을 보면서 인간은 자신의 순수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 영화의 대부분이 가족애나 인간애의 회복을 그리게 되는 것 같고요.

배다해 그렇긴 한데, 감동에 포커스를 둔 영화들이 너무 많아. 이젠 강력한 깨달음을 주는 영화들이 더 나왔으면 좋겠어.

이주희 다해 이야기는 그런 의미 같아요. <하치 이야기>, <파퍼 씨네 펍컨들>, <동물 농장> 같은 걸 보면 귀여운 동물들이 나와서 재물을 부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동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구나'라고요. 그러다 보면 단순한 흥미만으로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죠. 그만큼 버려지는 동물도 늘어나고요.

성장한 애완동물 시장의 반대급부로 유기견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배다해 우리나라에서 한 해 평균 버려지는 유기견이 10만 마리나 돼요. 문제가 심각하죠. 현재 우리나라가 동물을 바라보는 시선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감성적이거나, 너무 냉소적이거나. 법적으로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 인식 변화가 절실하고요. 우리가 동물을 통해 교감하고 치유하는 게 분명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시돼야 하는 건, 동물은 필요에 의해 키우는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에요. 왜 ‘동물 기르면 자식들 정서에 도움이 된다더라’, ‘동물이 있으면 심심하지 않다더라’ 하면서 키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보다는 ‘동물은 인간의 동반자’라는 생각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주희 작가

듣다 보니 반려동물을 받아들이는 데 가장 부족한 건, ‘왜’라는 인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배다해 그리고 그냥 예쁘니까 귀여우니까 키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생명에 대한 인식의 정립이 정말 전혀 안 돼 있어요. 외국의 경우 생명을 돈을 주고 사지 못하게 돼 있어요. 설령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죠. 어떤 게 ‘맞다/틀리다’를 떠나서, 사실 생명에 대한 인식 정립이 기본인 거잖아요.

이주희 아침에 <혹성탈출>을 봤는데, <새끼 여우 헬렌>과 같은 선상에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성탈출>의 침팬지와 고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된 세상에서 희생당한 애들이잖아요. 그 애들이 나중에 지구를 지배하게 된다는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동물이라는 이유로 학대당하고 희생당하는 게 얼마나 불합리한가에 주목해야 하는 거죠. <혹성탈출>의 메시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유기동물보호소에서는 유기동물을 10일 후 안락사 시킨다고 들었어요. <새끼 여우 헬렌>에도 동물 안락사와 관련된 얘기가 등장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으신가요?

배다해 무조건 반대죠. 생을 마감하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 좌우되면 안 돼요. 10일 후에 안락사시킨다는 사실은, 현실태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사례예요. 제도적 장치가 없으니까, 결국 안락사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너무 모순적이지 않나요? 한쪽에서는 말쑥한 생명이 죽어 나가는데, 한쪽에서는 돈을 주고 반려동물을 사는 모습은 말이 안 돼요.

이주희 저희가 다니는 동물병원에 시각장애를 지닌 형제 고양이가 태어난 적이 있어요. 눈이 먼 고양이는 아무도 입양하지 않으니 안락사시키기 전에 맛있는 거라도 먹여 보내야겠다 싶어서 수의사가 고등어를 사줬대요. 그

랬더니 눈도 안 보이는 고양이들이 서로 먹겠다고 막 달려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수의사가 진짜 많이 울었대요. 그 작은 것들도 이렇게 살겠다고 발버둥치는데. 그런 애들을 두고 안락사를 고민한 것이 창피하더라고요. 다행히 형제 고양이는 좋은 사람이 입양해갔어요. 그 애길 듣고 생각했죠. 아직 세상에 희망이 있구나!

두 분을 비롯해 가수 이효리, 영화감독 임순례 등 유명인들이 동물복지에 목소리를 높이고 계세요.

배다해 책임감이라기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채식도 시작했는데, 저는 채식주의자라기보다는 채식지향주의예요. 공장식 사육 실태가 현재 최악이에요. 그렇다면 공급을 줄여야 하잖아요. 공급을 줄이려면 수요가 줄어야 하고요.

이주희 저도 부분 채식을 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어요. 오히려 주위사람들이 제 식사에 너무들 신경을 쓰시죠. 함께 식사를 할라치면 “너, 이거 안 되지? 이긴, 돼?” 하면서 참견을 하는데 좀 불편해요. 사실 채식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요란스럽지 않게 채식을 행하려고 애를 쓰는데 주변 분들이 채식지향자들을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들로 만드는 경우가 많죠.

배다해 그래서 저는 상품화된 건 먹어요. 햄이 들어간 김밥이 있다면, 사람들 앞에서 햄을 골라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 제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너 하는 거 보니까, 채식 어렵지 않아 보여.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이런 말들을 하곤 하죠. 저는 채식 하는 분들이 융통성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동물보호나 채식은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된 건가요?

배다해 동물보호는 2002년 ‘개고기가 정말 우리의 문화인가’라는 내용의 다큐멘타리를 보고 관심을 가졌어요. 채식은 돼지 공장사육 문제에 대한 다큐멘터리 <1평방미터의 자유>를 보고 시작했구요. 지난 10년간 싸워서 이기기 위해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어요. 동물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지도 다 봤고요. 그래서 사실, 더 이상 그런 영상은 보고 싶지 않아요. 심리적으로 힘들어지면 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요.

이주희 저는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기본적으로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긴 했는데, 다해처럼 앞에 나서서 동물은 동을 한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동물보호단체 페타(PETA)가 만든 동물도살 영상을 보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동물보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됐죠.

한쪽에서는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개를 소비하고 있어요. ‘개고기 문화’ 때문에 동물보호운동 발전이 더딘 게 있나요?

배다해 그럼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원인치로는 하지 않고 결과치료만 하니가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간, 돈, 인력, 사람, 감성 등 너무 많은 게 낭비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문화’란 단어 자체가 인간의 이기심을 가장 잘 포장한 합리화가 아닌가 생각해요. 너무 이기적이고 비열한 거예요. 그럴 거면 아예 반려동물문화라는 말을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싶어요.

이주희 맞아. 알려진 것처럼 개고기가 유달리 고단백 식품은 아니래요. 개고기를 먹기 시작한 게, 전쟁 때라는 설이



있어요. 당시 먹을 수 있는 가족이 별로 없었니까, 개를 식용으로 소비한 거죠. 그걸 지금까지 ‘문화’라고 포장하고 있는 게 너무 어이없고 이기적인 것 같아요.

배다해 저는 사실 동물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개고기를 먹었어요. 성악을 했었는데, 체력 보강에 좋다고 하기에 먹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더라고요. 제가 책을 다 뒤져 봤거든요.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나라도 좋다

고 하면 내가 인정한다’ 이러면서요. 찾아보니 개고기에 흡수가 잘되는 단백질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위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육과정이 지금 너무 최악이니까. 모든 것의 원인은 자본주의적 사고예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내기 위해, 죽인 개들의 내장과 비계를 다시 식용개들에게 먹고 좁은 공간 안에 몰아넣어 기르니까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기르다 보니 전염병이 발생할까 봐 항생제를 잔뜩 먹이곤 하죠. 그게 인간에게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동물의 감정상태가 고기 덩어리 하나 하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 항생제 덩어리를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맛있어서 먹는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몸에 좋아서 먹는다면 안 먹는 게 맞는 거예요. 반려동물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굳이 그걸 먹어야 하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래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주는 <템플 그랜딘> 같은 영화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주희 또 나왔어, <템플 그랜딘>! (일동 웃음) 그 영화를 보고 얘기해야 했나 봐.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새끼 여우 헬렌>을 누군가에게 추천한다면요?

이주희 이 영화 나름의 화두는 있다고 봐요. 아이들과 함께 보기엔 관찬은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배다해 그래, 어린 아이들에게 좋은 영화일 수 있겠다. 그런데 10년 전과 비교해서 사람들 인식이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저는 사실 큰 기대 하지 않고 이 일을 시작했거든요. ‘나 죽을 때까지 뭐 하나 안 바뀌겠어?’ 하며 시작한 일인데, 우아, 정말 인식이 많이 좋아졌어요. 모두 영향력 있는 분들 덕분이예요. 효리 언니로 인해 많은 게 바뀌었어요. 그걸 보면 사람은 사회적 위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효리 언니의 행보가 저에게 좋은 자극을 주고 있어요. 효리 언니가 앞으로도 큰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힘을 보탬 수 있으면 좋겠구요. 그래서 더 열심히 달려려고요. 그러다 보면 세상이 언젠가는 ‘뽕’ 하고 바뀔 거예요. <3>

배다해님은 2010년 밴드 ‘바닐라루시’로 데뷔,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의 합창단 편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습니다. 밴드 탈퇴 후, 뮤지컬로 영역을 넓혀 활동 중입니다. 한국동물보호협회 정회원으로 10년 넘게 활동해온, 의식 있는 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이주희님은 한남동 길고양이들의 암마로 불리며 길고양이들의 밥을 챙겨주는 동물애호가입니다. 저서로 <이기적 고양이>, <이기적 식탁>이 있습니다.

따뜻한 인터뷰

인터뷰 김은성

사진 신승희

동물복지는 결국 사람복지와 연결된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지구는 동물의 지옥입니다. 둔기에 맞아 기절한 너구리는 산 채로 가죽이 벗겨집니다. 죽은 뒤 시간이 지날수록 가죽이 딱딱해져 상품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개는 주인의 차에 매달려 고속도로 위를 몇 시간이나 끌려갑니다. 살이 벗겨지고 뼈가 희게 드러나도 생명도, 고통도 도무지 끝나지를 않습니다.

고통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누구는 오열하고 누구는 외면하며 누구는 잠시 분노한 뒤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미 노출된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행동하기’를 택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함께 공생하는 행복한 지구를 상상하면서요.

동물을 좋아했지만 동물복지가 생활이 될 줄은 몰랐어요

2000년대에 동물자유연대(이하 '동자연')를 이끌기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기 사진 보이세요? 재가 작년에 열다섯 살로 죽었어요. 우리 복실이 시집보내려고 PC통신에서 짝을 찾다가 토론방에 들어갔었죠. 자연스럽게 동물보호 운동가들과 교류하게 됐고요. 그런데 봉사를 시작하면서도 늘 깊이 빠지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자냈어요.(웃음) 그러던 중, 2000년 즈음인가 동물 수술 실습을 보게 돼요. 유기견들이 수술 대상이었는데, 너무 예쁜 개가 성대수술을 당해 목에 봉대를 칭칭 감고 있었어요. 양쪽 귀도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새 또 당한 거죠. 아무렇지 않은 척 보다 나왔는데 길에서 갑자기 울음이 펑, 터졌어요. 그때 제 나이 마흔이었는데, '이제, 남은 인생은 너희를 위해 쓸게'라고 약속했어요.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만 해도 '애견, 애묘 문화는 사치스럽다'는 오해가 깊었어요.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을 듯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 이상한 사람 취급은 일상이었죠.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전무한 시절이었으니까요. 동물의 생명을 유린하는 게 죄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사람도 많았고요. 초창기에는 벽에다 대고 외치는 것 같은 답답함이 항상 있었어요. 가위 눌릴 때, 나는 간절히 말하는데 밖으로 소리가 나가지 않는 그런 느낌, 아시죠?

'동물복지'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와 편견은 아직 채 사라지지 않은 듯합니다.

그렇죠. 간혹 '사람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사치스럽게 무슨 동물복지냐'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동물복지

는 사람의 복지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용어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할 때 항상 이런 비유를 들곤 해요. 어떤 맹인이 개를 이용해서 구걸을 하는데 그 개가 사람처럼 두 발로 서 있어요. 목줄을 바짝 잡아당겨서 서게 된 건데, 이게 네발 동물에게는 굉장히 힘든 자세잖아요? 입에는 구걸통이 물려 있어서 숨도 헐떡거리죠.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올바른 거냐'고 물어요. 일단, 구걸통은 바닥에 놓아도 전혀 문제가 없고, 네발 동물은 네 발로 설 수 있게는 해줘야죠. 그런 게 '동물복지'의 기본이예요. '굳이 안겨주지 않아도 될 고통은 주지 말자'는 말이지요. 정리하자면, 동물복지란 최고를 목표로 두는 게 아니라, 최악의 고통을 한 겹, 한 겹 벗어나게 돕는 거예요. '차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차악이지만 인간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점점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갈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흔히 동물복지를 한다고 하면 '소, 돼지, 닭을 먹지 말란 얘기냐?'라고 묻는데, 인류가 멸절되지 않는 이상, 육고기를 먹는 상황이 사라진 않을 거예요. 죽더라도 좀 더 인도적으로 죽이자, 굳이 줄 필요 없는 고통을 줄이자는 거죠.

중국 연변의 '사육곰 농장 실태(살아 있는 곰 쓸개즙 채취 실태)'를 알리는 데에 동자연이 앞장서기도 했죠.

만 마리 이상의 반달가슴곰이 25년 이상을 고통 속에 살아가요. 좁디좁은 케이지에 갇힌 채로 배에 영구적으로 뿔린, 고름 가득 찬 구멍에 금속 바늘을 꽂고 쓸개즙을 채취당하죠. 구출된 곰의 40%가 간암에 걸려 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거의 모든 곰들이 쇠창살을 씹거나 종일 머리를 흔드는 등의 정신이상 행동을 보이죠. 그런데 곰 쓸개즙의 주 소비자층이 바로 한국인 관광객이라는 것 아세요? 백두산 관광을 할 때 곰농장에 가는 일정이 있는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육방법

이 바인도적일 뿐 아니라, 오염된 쓸개즙은 건강에 해롭기도 하거든요. 간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간 기능 개선제를 복용하기를 권해요. 쓸개즙에 들어있다고 믿는 '우루소데옥시콜린(UDCA)'은 합성이 가능해서, 국내 제약회사에서도 생산 유통돼요.

최근 2~3년 사이에 동물보호 운동에 있어 의미 있는 변화들이 많이 발생했죠?

네, 올해 2월 5일부터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기도 했고요. 동물학대자에 대해 기존의 500만 원의 벌금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어요. 언젠가 제가 좀 화가 난 적이 있어요. 한 엄마가 개를 키우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민을 듣고 있던 다른 엄마가 그럼 “일단 사줘. 아이가 개 키우는 게 힘들다는 걸 알면 개를 포기할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참 무책임한 발언이죠? 그에 비해 요즘엔 반려동물의 입양과 파양에 대해 훨씬 신중해졌죠.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거면 키우지 말아야 해.’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뿌듯하죠.

동물들이 학대당하는 현장에서 계속 구조 활동을 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몹시 지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초창기에는 자주 울었어요. 지금은 가끔씩만 울어요. 상처에 딱지가 앉지 않고 피고름이 계속 흐르면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자기최면을 자주 걸어요. 저희는 보신탕집 주인처럼 연기하며 몰카를 찍을 때도 많거든요? 심지어 개들이 학대당하는 현장을 뺨히 보면서 너스레를 떨며 대화해요. 속으로 피눈물이 나죠. 그런 현장의 상황이 고스란히 트라우마로 남아요. 갑자기 어느 날 막 오열이 터질 때도 있어요. 오랜 기간 쌓여 있던 거니까 순간적으로 분노가 확 일어나죠. 부들부들 떨고 잠을 못 자기도 해요.

동물보호운동가들을 위한 심리치료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나요?

외국에는 있다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동물보호운동의 역사가 긴 것도 아니어서 동물복지 활동가들의 심리 치료를 맡아줄 수 있는 전문가가 없죠. 한번은 제가 진지하게 병원에 가본 적도 있는데 의사가 제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답답하기만 했어요. 가끔 지인에게 필드 상황을 이야기하면 다 듣고 나서 “와~, 참 좋은 일하시네요요”라고 말을 해요. 분명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 대답을 들으면 더 착잡해요. 이해하거나 공감하고 답하는 것 같지 않아서.

동자연에서 ‘동물보육원’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동물보육원 프로젝트는 2010년부터 시작했어요. 이전의 유기동물 보호소는 유기동물을 포획해 일정기간 가뒀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안락사시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희는 입양이 주목표예요. 일단 저희 품으로 들어오면 치료한 후, 엄격한 입양자 심사를 거쳐 입양을 보내려 해요. 입양 후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아이들은 저희가 끝까지 돌볼 거예요.

가능한 변화를 추구하세요,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동자연 사이트에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 브랜



드' 목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수의 한국 여성이 사용하는 중저가 로드샵 브랜드는 이에 해당하질 않았어요. 동물보호를 실천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는 오해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을 구매하느냐보다 무엇에 동의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브랜드가 비싸 구입하기 힘들다면 우선 ‘동물실험에 반대한다’는 생각을 갖고 그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부터 선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도 우선 충분한 의미가 있어요. 다만 ‘고가 브랜드는 동물실험을 안 하고, 저가 브랜드는 동물 실험을 한다’는 이분법은 옳지 않다고 봐요. 느끼기는 하지만, 국내 브랜드들도 점차 동물실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원료 문제는 숙제로 남아 있어요 동물실험을 한 원료를 쓴 후, 완제품에는 동물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표시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눈가림이죠. 중국이 특히 문제예요. 중국에서는 동물실험을 마친 화장품만을 수입 허용해요. 갈 길이 멀죠. 현재 화장품의 동물실험의 무용론이 학술적으로 입증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물 보호론자 중에는 채식을 하는 사람이 많죠. 외식 산업의 메뉴 구성에 고기가 주를 이루다 보니 “채식주의자 수가 늘어나면 외식업자들, 다 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원래 우리 고류 식단은 채식 중심이에요. 요즘 들어 육류 소비량이 급격히 늘고, 요리마다 소고기 다사다가 들어가게 돼서 문제죠. 동물보호 운동 쪽에서 ‘완전채식’을 고집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채식은 개인의 선택이고 신념인데, 각자의 상황에 맞게 단계를 조절해서 실천하는 게 맞죠.

공장식 축산에 관련해서는, 축산업계라는 거대 이익 집단과 정부의 커넥션이 존재하잖아요. 그들을 상대로 동물보호단체는 어떠한 플랜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소비자가 변해야 해요. 생산자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그것뿐이에요. 일단 동기부여는 시각적 효과에 의해 가장 빨리 되는데요. 공장식 축산의 비참한 현실을 영상이나 만화 등으로 시각화해서 많이 보여주려고 해요. ‘인간이 이렇게까지 해서 고기를 먹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게요. “성장 호르몬이나 항생제를 남용한 고기는 인간의 몸과 영혼에도 해를 끼칠 거야”라는 건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수긍할 만한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동물복지는 결국 인간복지로 연결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동물자유연대

www.animals.or.kr

대표전화

02 2292 6337



중국의 공농장에서 무려 만여 마리의 반달가슴곰이 산 채로 쓸개즙을 채취 당하며 국기보다 못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걸 안 다음부터는 다른 곰들을 봐도 마음이 무거워지곤 했다.



그리고 곰들이 그토록 비참하게, 서서히 죽어가야 하는 건 대부분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 때문이라는 사실에 직면해서는, 어디 머나먼 별나라로 훌쩍 망명해버리고 싶은 기분마저 드는 것이었다.



풍성한 토핑이 매력적인
콤비네이션 피자

피자 11감사절

풍성한 치즈를 수확하는 계절,
야채 아가씨 신선함으로 유혹하고
고기 총각은 건강한 육질을 뽐내니
세상은 온통 잘 익은 토마토 빛깔!
오늘은 모두 모여 네네 피자 만드는 날
“Thanks Giving Pizza Day! 피자 감사절”



마귀살명의 유혹

핫치킨과 핫소스의 매콤한 유혹!



올레 불고기

맛 좋은 불고기와 데리 소스의 조화!

*치즈링 골드 피자감사절 : 페퍼로니플러스 돼지고기(수입산), 쇠고기(호주산)/포크앤비프로팅 돼지고기(미국산과 국내산 혼합)
쇠고기(호주산)카나디안햄 돼지고기(수입산과 국내산 혼합)/모짜렐라치즈(수입산)

*치즈링 골드 마귀살명의 유혹 : 베이컨스타일탐핑 돼지고기(수입산과 국내산 혼합)/모짜렐라치즈(수입산)

*치즈링 골드 올레불고기 : 불고기프리미엄 쇠고기(호주산)/모짜렐라치즈(수입산)

달콤한 **고구마** 무스와
풍부하고 고소한 **치즈**가 더블!

치즈링골드



네네피자 **맛**의 key point!



100% 천연치즈를 사용해 진하고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글루텐 함량이 높은 쫄깃한
숙성도우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스크린(석쇠)으로 구워낸 담백하고
깔끔한 피자 본연의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토핑을 얹은 다양한 메뉴에는
즐거운 맛과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전생을 기억나게 해주는 향기



기억을 되찾아주는 나무가 있다고 한다. 일 년에 꼭 한 번 그 나무에 꽃이 피어 꽃의 향기가 절정에 이르는 날 밤. 그 꽃나무의 향기를 맡으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전생의 기억이 떠오른다. 향기가 사라지고 나면 마치 기억이 마비가 되어버린 것처럼 전생의 기억이 떠오르지 않아 다시 아무 일 없듯이 살아간다고 한다.



향기와 기억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향기는 우리 뇌에 어떤 작용을 미치는 것일까.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한 소설에서 주인공 그루누이는 향수를 만들어낸다.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향기로 말미암아 그는 사람들을 지배하기도 하고,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얻어내기도 한다.

두통에는 국화향기가 좋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는 장미향기, 라벤더향기가 좋듯이 실제로 향기는 기쁨, 우울, 슬픔 심지어 성능까지 조절해주며 사람의 마음을 명상상태로 이끌어주는 등, 영혼에게 지 영향을 미친다. 제삿날 피우는 향이 혼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듯이 향기는 분명 인간이 사는 삼차원의 공간만이 아닌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사차원까지 넘나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컴퓨터를 켤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듯이 어찌면 존재의 비밀, 과거와 미래를 여는 비밀번호는 향기일지도 모른다.

독일 드레스덴을 거쳐 프라하로 가기 전 체코의 어느 작은 국경 마을에서 하룻밤을 잔 적이 있다. ‘테신’이라는 산골마을이었는데 내가 머문 숙소는 다락방처럼 삼각형 지붕 아래였고, 창문을 열면 손바닥만한 광장과 그 귀퉁이 둘레로 삼점과 야외 맥주집이 보였다.

짐을 풀고 늦은 밤 숙소 바로 밑 광장 카페에서 마신 15도짜리 체코 생맥주는 참 맛이 있었다. 피곤함과 함께 온몸 가득 뜨겁게 취기가 올라왔다. 다시 숙소로 들어갔을 때는 새벽 한 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5층 맨 꼭대기 지붕 아래 숙소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광장과 가로등, 내가 마신 맥주집이 너무 예쁘게 보여 창문을 열었다. 아마도 숙소 뒤가 숲이었나 보다. 창문을 열자 훅! 나무향기가 들어왔다. 그 향기는 코와 가슴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마치 영혼이 들어마신 그런 느낌이었다. 소나무 냄새 같았는데 그것보다는 좀 약하면서도 오래 남는 맑은 나무향기였다.

그 순간, 무언가 내 의식과 기억 한 편이 열리고 있다는 느낌, 그러면서 문득 그 광장이 낯설어 보이지 않았다. 언젠가 한 번 와 본 것 같은, 누군가와 분명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깔깔거리고 머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닌 아주 오래 말이다. 지붕 아래 숙소에서 광장을 바라보며 글을 쓰고, 광장 맥주집 바로 옆에 있는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는 한 여인에게 손을 흔들며 담배를 사다 달라던 기억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아! 미친 것인가? 시차적응이 안된 데다가 술을 마셔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이곳 산간마을의 나무숲향기가 기억의 여단을 어지럽히는 것일까?

사람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꼭 전생에 살았던 곳을 들르게 되거나 잊지 못할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습관! 혹은 전생의 강한 어떤 것을 기억하고 있던 유전자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내 영혼을 몰고 간다는 것이다.

떠나기 싫었던 체코의 산간 국경마을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동유럽의 알프스라고 하는 타트라 산맥을 넘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그야말로 저 푸른 초원 위의 그림 같은 집들과 푸른 초원의 언덕들,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몇 무리의 소와 목동들을 자동차로 네 시간 정도 넘어왔을까? 중간 산 언덕 휴게실에 잠시 머물렀는데 주변이 침엽수림으로 가득했다. 목젓이 보이도록 고개를 젓히고 바라보아도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다높은 침엽수 뽕뽕한 그 숲에서 나오는 나무향기는 바로 체코의 산간마을 숙소에서 맡던 그 향기였다.

머리를 너무도 맑게 해주는 그 향기, 코끝으로 들어와 내장의 깊은 곳까지 어루만지고 가는 듯한 그 향기, 기억의 어떤 오감을 열어주는 것 같은 그 향기, 높은 침엽수림 사이로 아득한 하늘이 비치고, 그 푸른 하늘과 햇빛 사이에서 무언가 존재의 비밀을 풀어줄 것만 같았던 그 향기. 그 침엽수림을 뒤로 하고 다시 자동차는 타트라 산맥을 내려갔다. 비가 오다가 안개가 자욱이 끼었다가 다시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무지개가 걸리고 파란하늘이 보이기를 몇 번 반복하며 넘은 산맥이었다.

다시 조용한 마을이 나오고 푸른 초원의 길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머리에 광주리를 얹고 언덕길을 내려오고 있었다. 이곳에도 광주리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구나 생각하며 할머니를 보다가 나는 그만 깜짝 놀랐다. 어렸을 때 광주리에 고구마와 감자를 삶아 이고 오시던 할머니, 나의 그 할머니와 눈앞의 할머니 생김새가 너무도 똑같았기 때문이다. 아! 이럴 수가! 버스가 기우뚱 커브를 틀면서 할머니를 스치는 10여 미터 차창 앞을 보며 나는 작은 목소리로 그만 '할머니!'라고 불렀다.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는 버스의 차창 너머로 할머니의 모습은 점점 사라졌다.

체코 산간마을의 그 작은 방에 꼭 한 번 다시 들르고 싶다. 아직도 가슴 한쪽에 스며 있는 맑은 나무향기를 다시 한 번 맡고, 타트라 산맥을 넘고 싶다. 산맥 너머 언덕 위의 초원의 집 어딘가 살고 있을 할머니, 그것이 비단 데자뷰 현상이었어도 친할머니로 오인한 착각이었어도 나는 내 전생이 체코 그 어딘가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어렸을 적 마루에서 잠을 자다가 목을 조여 오는 것처럼 진한 라일락향기에 벌떡 일어나 영영 운 적이 있다. 무엇이 그리도 서러웠을까. 어떤 기억이 내려다 만 것이었을까. 라일락향기 날리는 뜨거운 봄 저녁, 너무나 외로워서 그만 울었다.

인간이 근원적으로 외로운 것은 자신의 별자리에 두고 온 또 다른 자신의 반쪽을 그리워하기 때문이다. 쌍둥이별자리 어딘가에 있을 또 다른 나, 천청자리, 양자리, 게자리... 어딘가에 살고 있을 또 다른 당신.

전생을 기억나게 해주는 향기가 있다. 후드득 코끝을 스치면 잠시 머릿속에 영상이 떠올랐다가 이내 파랗게 사라지고 마는 지난날, 백 년, 천 년 전에 당신은 누구였으며 어디서 무엇으로 살았을까? 백 년, 천 년 후에 나는 어떤 물방울로, 어떤 분자로 혹은 어떤 향기로 남아 있을까. 49

인연

詩 장석남

어디서 봤더라
어디서 봤더라
오 그래,
네 젖은 눈 속 저 멀리
언덕도 넘어서
달빛들이
조심조심 하관(下棺)하듯 손아귀를 풀어
내려놓은
그 길가에서
오 그래,
거기에서

파꽃이 피듯
파꽃이 피듯

필자소개 **권대웅** 시 쓰는 일이 삶의 1순위였는데 밥벌이의 숭고함(?) 때문에 책 만드는 일이 그 순위를 바꾸어놓았다. 여태까지 그가 기획하고 만든 책이 500권이 넘어 그는 늘 나무에게 미안해한다. 시집으로 <당나귀의 꿈>, 산문집 <천국에서의 하루> 등이 있다.



도서관 여행자

글과 사진 이인숙

지역 네트워크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유기체처럼 살아 숨쉬는

브레멘 시립도서관 (Stadtbibliothek Bremen)



북해로 이어지는 베저(Weser) 강이 가로지르는 독일 북부도시 브레멘(Bremen). 중세에 한자도시(해상무역이 성행하던 13~17세기에 무역동맹을 맺은 도시)로 명성을 떨쳤던 브레멘답게 구 시가지에는 아름다운 고딕양식의 건물들이 모여 있다. 그 구 시가지가 끝나는 지점, 과거에 도시를 둘러싼 성벽이 있던 자리에 브레멘 시립도서관이 웅장하게 서 있다.



새 것과 오랜 것이 조화를 이루는 미로 같은 공간

1900년에 설립된 브레멘 시립도서관은 지난 2004년, 시립 미술관과 오페라극장 등 브레멘의 주요 문화공간과 이웃한 중앙경찰청사로 이사했다. 1908년에 건축가 칼 본 슈타인(Carl Börnstein)에 의해 지어진 이 경찰청사는 ‘브레멘 제83호 문화재’라는 위업에 걸맞은 고풍스러운 외관으로, 북부 독일의 흐릿한 하늘을 배경으로 멋스럽게 자리하고 있다.

이용객이 자동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유리 천장이 높이 떠 있는 공간이 등장한다. 그 안으로 현대식의 도서관 건물이 보인다. 오래된 경찰청사 안에 새로운 건물을 증축한 결과다. 도서관 입구에는 빵집과 카페, 스프 전문점 등이 자리하고 있는데, 도서관을 방문한 사람들이 나무 테이블에 앉아 간단히 요가를 하며 대화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도서관은 ‘탑(Turm)’이라 불리는 정사각형의 중앙건물과 그 탑을 빙 두르는 ‘날개(Flügel)’로 나뉘는데, 두 공간을 비롯해 매 층과 층 사이를 엘리베이터와 계단으로 꼼꼼히 연결해 놓았다. 때문에 초보 이용객들은 ‘전체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지?’ 하며 아리송해하곤 한다. 이 같은 이용객들을 위해 로비에는 브레멘의 각종 행사소식을 전하는 팸플릿과 함께 도서관의 평면도가 비치되어 있다. 이 평면도는 중세 수도원 특유의 미로 같은 도서관을 탐험하기 위한 지도나 다름없다.

회원들의 회화 전시, 인권을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신비로운 미로 같은 도서관 곳곳에는 책을 빌리고 읽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보물처럼 숨어 있다. 책장 넘기는 소리만 들리던 고요한 도서관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용도의 도서관으로 변모하는 것이 요즘의 도서관 트렌드다. 말하자면 '시끌벅적한 도서관'이랄까. 브레멘 시립도서관 역시 이러한 추세에 맞춰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 및 외국어와 컴퓨터 강좌를 마련해왔다. 특히, 브레멘의 여타 문화시설이나 공익단체와의 단단한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고 제공하는 개성적인 행사들은 이 도서관만의 특별한 매력이다.

예컨대, 현재 도서관 2층의 긴 복도에는 정신요양원인 '요한 크래프트 하우스(Johann Kraeft Haus)' 미술반 회원의 회화가 걸려 있다. PC와 각종 신문 및 정기 간행물이 모여 있는 탑의 2층 한편에서는 글로벌 기업의 비인간적 노동착취 중단을 촉구하는 '깨끗한 옷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사회 이슈를 다루는 캠페인을 비롯해 전시회, 음악회, 토론회, 작가와의 간담회 등이 수시로 개최되는 도서관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쉽지 않을 듯하다.

브레멘 시립도서관에서 가장 흥미로운 서비스를 꼽는다면 단연 '쿤스트하우스라이헤(Kunstausleihe)'다. '쿤스트'는 미술작품, '하우스라이헤'는 대여란 뜻의 독일어다. 도서관의 모든 책과 음악 CD, 영화 DVD를 빌릴 수 있는 도서관카드의 연회비가 2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25유로(한화 37,000원)인데, 거기에 10유로(한화 15,000원)를 더 내면 개인이 구매하기 어려운 그림이나 사진이 담긴 액자를 빌려와 자기 집 벽에 최장 9개월까지 걸어놓을 수 있다. 총 3,200여 점에 달하는 작품들은 도서관 내의 쇼룸에서 실제로 보고 고르거나 도서관 홈페이지의 카탈로그에서 고른 후 예약할 수 있다. 파티나 행사를 위한 장식이 필요하거나 집안 분위기를 바꾸고 싶을 때 탁월한 대안이 될 것이다.





피아노 대여서비스도 독특하다. 최근 음악코너에는 브레멘 도서관협회에서 기증한 아마하 디지털피아노가 새로 들어왔다. 데스크에서 도서관카드로 헤드폰을 빌리기만 하면 바로 옆 책장에서 악보를 꺼내와 피아노 연주를 즐길 수 있다. 놀이 공간도 충분해서 청소년관에는 보드 게임을 대여해주는 코너가, 어린이관에는 아이들이 책과 함께 놀 수 있는 호수 모양의 공간이 있다. 성인들이 컴퓨터 게임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종종 준비된다. 이렇듯 브레멘 시립도서관은 단순한 서고를 넘어 브레멘 시민들이 일상에서 소소한 기쁨들을 다양하게 누릴 수 있도록 입체적인 환경을 제공해준다. 자체의 기능이 출중한 곳이 주변 공간들과 촘촘한 관계를 맺으면 그 영향력이 극대화된다. 브레멘 시립도서관은 브레멘의 여섯 개 지역구 도서관, 브레멘 대학도서관 그리고 브레멘 전 지역을 순회하는 도서관 버스와의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다양한 문화, 예술 및 교육 프로그램과 견고한 지역 네트워크로 시민의 일상 속에서 유기체처럼 살아 숨 쉬는 도서관, 브레멘 도서관에 들를 때마다 '지구는 끝없이 재미있는 곳이었지'라는 감각이 되살아난다. <4>

브레멘 시립도서관

주소 Am Wall 201, 28195 Bremen

홈페이지 www.stadtbibliothek-bremen.de

전화번호 +49 421 361 4465

개관시간 월·화·금 10:00~19:00 수요일 13:00~19:00 목요일 9:00~20:00

토요일 10:00~16:00 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필자소개 **이인숙** 월간 <PAPER>의 객원리포터였던 이인숙은 2008년부터 독일 브레멘에 거주 중이다. 현재 인디음악 레이블 <Songs & Whisper>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며 독일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행복의 하모니가 울려 퍼지는 책방으로 나와유~ 남양주시 ‘나와유 책방’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면 왕숙천 근방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서, 도시에서 이주해 온 주민들과 기존 빌라단지 주민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의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와 빌라의 중간쯤에 있는 작은 공원에 <나와유 책방>이라는 컨테이너 박스 두 개가 세워졌다. 그리고 12월 22일 <나와유 책방>은 개관행사로 연날리기 대회를 했다. 많은 이들의 소원을 담고 겨울 하늘을 날던 이 연들 가운데에는 “아파트와 빌라단지 주민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라는 소박한 소원도 적혀 있었다.

어울림의 행복

언젠가 수평선을 보았다면, 그것을 한번 떠올려보기 바란다. 절대 만나지 못할 것 같은 하늘과 바다가 이룬 사색 물안개 피어오를 때 서로에게 녹아들던 모습을, 저녁놀이 질 때 하나의 색으로 함께 물들어가는 풍경을 본 적 있는가? 진접면 주민들에게도 물안개나 노을과 같은 무언가가 필요했다. 갑작스런 도시 개발로 인해 도농복합적인 성향을 갖게 된 진접에서, 서울에서 살던 젊은 엄마들과 오랜 시간 진접면을 지켜온 빌라단지 주민을 소통하게 할 무언가가 말이다.

<나와유 책방>의 시작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문화재단의 후원으로 배영환 작가가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한 책방 5개를 설치했다. 그 가운데 하나인 ‘반디책방’이 운영의 어려움으로 진접면 ‘진접 문화의 집’에 운영을 의뢰해왔다. 진접 문화의 집에서 오랫동안 여러 행사를 기획해온 조미자 선생은 ‘이 책방을 왕숙천변 빌라촌과 아파트촌의 사랑방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했다. 그렇게 <나와유 책방>은 두 번째 보급자리를 찾았다.

‘나와유’는 “나와요”의 충청도 사투리다. 한편으로는 ‘나’와 ‘You(당신)’의 중의적 의미도 있다. 모두가 이곳으로 ‘몰려 나와’, ‘나와 당신’이 함께 행복해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자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

책방지기의 수많은 판 생각

특별한 것은 이 책방이 진접 엄마들에 의해 직접 운영된다는 것이다. 원래 진접에는 ‘아이러브 진접맘’이라는 육아정보공유 커뮤니티가 발달해 있었다. 이 커뮤니티를 개설한 ‘아이맘’은 “처음 진접에 왔을 때,



진접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정보를 물어보고 나눌 공간이 필요해서 자연스럽게 이 공간을 만들었다”면서 “처음에는 어느 소아과가 좋은지, 어느 식당이 맛있는지 등의 소소한 정보만 나누다가, 점차 불우이웃돕기, 재능기부, 벼룩시장 등 다양한 행사를 하게 됐고, 어느덧 지금은 회원 수 15,000명이 넘는 거대 커뮤니티가 됐다”고 말했다.

진접 문화의 집은 ‘아이러브 진접맘’에 〈나와유 책방〉의 운영을 의뢰했고 둘의 만남은 엄청난 시너지를 냈다. 우선, 진접 문화의 집은 12년간의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다. 또한 책방으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주민들의 적극적 도서 기증을 요청함은 물론, 진접 문화의 집 도서관의 책과 〈나와유 책방〉 책을 순환배치를 하면서 더 많은 이들이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아이러브 진접맘’ 출신의 수많은 책방지기들은 도서관을 단순히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닌, 마을 주민이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 덕에 전에는 온라인으로만 활동했던 커뮤니티 회원들은 도서관에 모여 차도 나눠 마시고 수다를 떨며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게 됐다. 회원들은 각기 다른 재능을 활용해 아이들 공부방도 열고, 쿠킹, 홈패션 클래스를 운영하기도 하며 악기를 배우기도 한다. 나이가 이곳을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방 앞 공원에서 벼룩시장이나 바버큐파티, 고구마 번개모임도 열 계획이다. 영화상영이나 마을 어르신들의 화투 경연대회도 계획 중이라고 하니, ‘진접면 사랑방’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듯하다.

〈나와유 책방〉은 이 마을을 변화시켰다. 서로를 시기 견제하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작은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나가고 있다. 주민들 한 명 한 명이 이 책방을 ‘내 공간, 우리의 책방’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이 ‘사랑방’ 덕에, 올 겨울 진접면 사람들은 이웃과 더불어 춥지 않게 겨울을 날 것 같다. < >

필자소개 **정나리** 기자로서 새웠던 날밤들을 애뜻하게 기억하고 있는 정나리는 현재 SNS 컨설팅 및 온라인 광고기획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도 글밥의 감칠맛을 잊지 못해 한 달에 몇 번, 기자로 외도를 한다. 취재 날이면 연락없이 “무슨 좋은 일 있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몰오른 낮빛이 된다.



필자소개 권혁웅 시인이자 문학평론가. 시집으로 <마장가 깨보화>, <그 얼굴에 입술을 대다>, <소문들> 등이 있다. 평론가로서는 미래파 시를 옹호하지만 정작 그의 시는 전통적 서정시에 가깝다는 아름다운 아이러니가 있다. <동물나라 주민센터>에서는 동물에 비유된 사람의 행태를 다룬다.



동물나라 주민센터

사자는 오래 못 산다. 매일 고기만 먹지,
사냥할 때 배고픈 잠만 자지, 그렇게 자다가
갑자기 뛰니까 심장에 무리가 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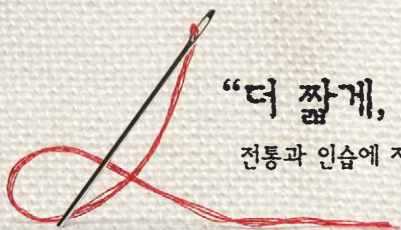


그래서 사자의 평균수명은 10~20년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오래 사는 녀석들은 드물다.
고혈압에 운동부족, 심장병을 안고 사는 게
'라이언 킹'이라고.



밤마다 숲집에 들렀다 귀가하는
배불뚝이 아저씨들을 보면 백수의 왕,
'라이언 킹'이 생각난다.
아니 둘이 무척이나 닮았다.





“더 짧게, 더 짧게” 미니스커트 레볼루션

전통과 인습에 저항한 1960년대 패션트렌드

1960년대는 젊은이들의 기발함과 실험정신이 강하게 두드러진 시기였다. 정치적으로는 미국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에 대통령 자리에 앉은(1961년 1월) 존. F. 케네디가 뉴프런티어 정신을 부르짖은 시대였다. 그의 부인 재클린은 역대 퍼스트레이디들에 비하면 과격적일만큼 패션의 최첨단을 걷는 멋쟁이여서 세계의 유행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눈부시게 발달한 우주과학은 미국과 유럽 간의 우주 중계에 성공, 전 지구를 1일 문화권으로 만들었다. 시대 상황을 반영하듯 대중음악도 이전의 경향과는 느낌이나 형식이 전혀 다른 것들이 등장해 젊은 세대의 사랑을 받았다. 트위스트 음악과 춤이 폭발적으로 유행하고 영국 밴드 비틀즈가 전 세계 젊은이들의 우상이 된 것도 60년대의 일이다. 그러나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60년대의 시대정신을 강하게 반영한 건 패션계다.

한국의 패션계가 그러저럭 골격을 잡은 것도 60년대 중반경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는 유명업소들이 이때를 전후하여 명동에서 본격적으로 양장문화를 열었다. 60년대 초의 양장점 풍경은 요즘 번두리의 한복점과 흡사했다. 복자가 벽에 죽죽 걸려 있고 매장 안에는 재봉틀과 재단대가 놓여 있었다. 또한 <장원>, <드레스 메이킹>, <로피시엘> 등 외국잡지가 필수적으로 비치돼 있었다. 업주들은 뒷전에 물러앉아 있었고 고객은 점원들이 맞았다. 이들이 요즘 말로 디자이너인 셈이다.

양장점 옷은 모두 맞춤복이었던 시절, 점원은 고객과 함께 먼저 복지를 고른 다음 몇 장의 스케치 중에서 고객이 선택한 디자인을 재단실로 보내는 역할을 했다. 아직 양장의 역사가 짧고 옷이 모자라던 시절이어서 디자이너라인을 새로 만든다는 식의 창조적인 개념은 희박했다. 1964년 국제복장학원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모델을 양성하는 차밍스쿨이 문을 열어 패션쇼와 매스컴에 모델들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1964년 외국신문들은 유럽 피서지 해변에 등장한 토플리스 차림 여인들에 대한 기사를 커다랗게 취급했고, 경찰당국은 이 여인들의 벌거벗은 상반신을 담요로 둘러싸서 연행해가는 등 벌금 소동까지 벌였지만, 세계 대도시에서는 토플리스 수영복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후에 마이크로 비키니까지는 등장했지만 가슴을 드러내는 모노 비키니가 눈에 띄었다는 보도는 없었다. 토플리스 수영복이 경이적이었던 만큼 유행으로서의 폭이 넓고 생명력이 길지는 못했던 반면, 미니 모드는 그 유행의 진폭이나 기간으로 보아 대단한 위세를 떨쳤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 영향권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한 뼚의 미학’ 미니스커트 유행, 끝을 모르고 치솟다

1965년 프랑스 디자이너 앙드레 쿠레주가 내놓은 미니스커트는 처음에는 어린애 옷 같다니, 의자에 앉거나 몸을 구부렸을 때 특히 흉하다니 하는 반발이 컸다. 그러나 영국 출신의 디자이너 메리 퀸트가 갱마른 10대 소녀 모델 트위기(5피트 6인치의 키에 체중 90파운드, 31-22-32의 체형을 가졌던 모델)에게 미니스커트를 입혔고 그 후 트위기는 세계 패션계의 신데렐라이자 영 패션의 주류가 되었다.

미니스커트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상륙한 것은 60년대 후반이었다. 1967

년 미국에서 귀국한 윤복희는 가냘픈 몸매에 초미니의 경쾌한 스커트 차림으로 TV와 신문에 연일 그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한국에 미니스커트를 유행시키는 데 일조했다. 또 최경자 씨가 창간한 최초의 패션전문지 <의상> 창간호 표지에도 가수 윤복희의 미니스커트 모드가 실리면서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매스컴에서는 사회명사나 일반인의 의견을 빌어 찬반론이 대두되었고 마이크로 미니의 무릎 위 길이에 대한 공방전이 심심치 않게 지면을 장식했다.

서울에서도 폭발적으로 유행의 물결을 타기 시작한 미니스커트는 다리가 굵고 짧은 동양여성에게는 안 어울리는 모드라는 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스커트의 길이는 겉잡을 수 없이 계속 짧아지기 시작하여 그 당시 정부에서는 무릎에서 15cm 이상 치마가 올라가지 않도록 단속령을 내렸다. 거리에서는 경찰이 자를 들고 여자들의 스커트 길이를 단속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양장점들은 새로 미니스커트를 맞추려는 이들이나 입던 스커트를 새로운 유행 추세에 맞게 한 단 짧게 고치려는 여성들로 성황을 이뤘다. 무릎이 나오게 짧아진 치마기장은 철마다 해마다 점점 짧아져서 마이크로 미니, 혹은 울트라 마이크로 미니 등 새 이름을 넣기도 했다. ☆

©한겨레의상박물관



잡지 <의상계> 표지 모델 윤복희(1968)



경찰이 단속하는 모습

필자소개 **신혜순** 한국현대미술박물관의 관장. 충남 예산에 대형 수장고를 지어 의상을 보관하며, 공평이가 피지 않도록 일 년에 두어 번, 별 좋은 날을 골라 옷들을 말린다. 옷에 대한 기록을 컴퓨터가 아닌 종이에 남기는 아날로그주의자다. 지은 책으로는 <패션과 스타일>, <한국 패션 100년> 등이 있다.

방신영, 한국 최초로 근대식 요리책을 낸 여성

우리나라 요리의 방향을 제시한 <조선요리제법>

‘인류 생활에 제일 필요한 것은 음식이니 음식은 곧 우리 생명을 유지케 하는 것이라.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자 어찌 식물을 선택지 아니하며, 음식 만드는 법에 대하여 연구치 않으리오. 그러므로 과학이 발달되고 위생사상이 보급된 각국에서는 식물에 대한 연구와 음식 만드는 법에 대한 노력이 적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조선은 이러한 일에 대하여는 더욱이 캄캄하고 등한히 여길 뿐만 아니라, 촌가정을 들여다 보면 좋은 재료를 가지고도 볼품없이 맛없이 만들어 먹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할 수 없으며, 깨끗하지 못하게 하는 가정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것을 볼 때에는 우리 조선에 가정의 교육까지 제일치 못한 것을 크게 애석히 여기는 동시에, 이러한 일에 대하여 도움이 될 만한 책도 한 가지 없음을 더욱 크게 유감으로 여겼습니다. 고로 천견(淺見)을 불구하고 수년 전에 한 책을 편술하여 그 이름을 <조선요리제법>이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리에 일가견이 있던 어머니로부터 전통요리 비법을 배우다

이 글은 1921년에 출판된 <만가필비(萬家必備) 조선요리제법(朝鮮料理製法)>이란 책의 서문에 나온다. 이 책의 저자는 방신영(方信榮, 1890~1977)이다. 그렇다면 방신영은 누구인가? 방신영은 1890년 경성부 효자동 56번지에서 기독교 신자였던 아버지 방한권과 음식 솜씨가 뛰어나서 주위로부터 이름이 났던 어머니 최 씨 사이의 둘째딸로 태어났다. 하지만 아버지 방한권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 대한제국 시기의 자료를 찾아보니 우체기수보(郵便技手補:우편물 취급인)로 일했던 방한권(方漢權)이 나온다. 혹시 이 사람이 방신영의 아버지는 아닐까? 왜냐하면 당시 우체기수는 가장 첨단직업이었기 때문이다. 그 직업이 서양인과 빈번한 접촉을 하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방한권이 기독교 신자가 되지 않았을까? 기독교 집안이었고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방신영은 당시에 쉽지 않았던 일인 여학교 입학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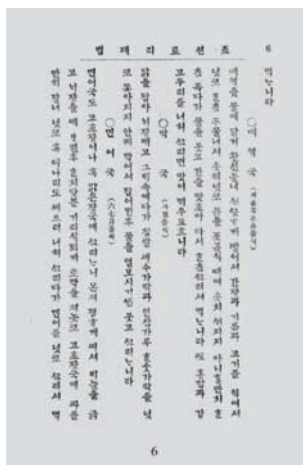
그는 1910년 경성 정신여학교를 졸업하고, 광주·군산·금천 등지에서 11년간 교편을 잡았다. 1921년 그는 모교인 서울의 정신여학교 가사과로 자리를 옮겼다. 그야말로 금의환향한 셈이다. 이렇게 된 데는 다분히 그가 쓴 <조선요리제법>이 결정적이었다. 일찍이 방신영은 28세의 나이였던 1917년에 <조선요리제법>의 저자로 세상에 알려져 있었다. 이 책은 출간 당시 상당한 인기를 얻었고, 그 결과 모교에서는 방신영을 초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 요리책을 근대적 출판물로 펴낼 생각을 했을까? 그가 남긴 글에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어려서부터 상당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규모 있게 배웠던 방신영에게는 음식 만드는 일이 가장 큰 취미였다. 결국 ‘더 연구하고 더 조직적으로 만들어보리라’는 결심으로 하나씩 하나씩 일부러 실습을 하여 가면서 뺄 것은 빼고 더 넣을 것은 더 넣어가며 여러 번이나 시험한 후에 그것을 일일이 글로 써서 책까지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방신영의 어머니 최 씨의 역할이 지대했다. 방신영은 ‘때는 연소하였고 경험도 없었으나 자연으로 일어난 붉은 마음 하나로써 어머니 뒤편 앞에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여쭙어보고 조그마한 손으로 적어 만들었다’고 1931년 판 책의 서문에서 직접 밝히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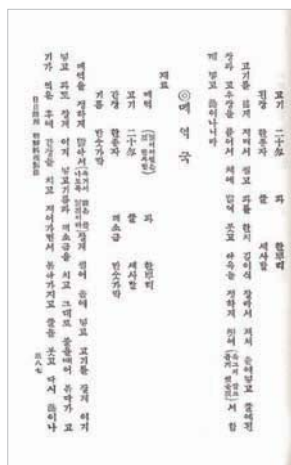
방신영이 ‘저자’로 당당히 표기되고 내용도 달라진 1921년 판

불행하게도 1917년 판 <조선요리제법>은 오늘날 전해지지 않는다. 천만다행으로 1918년에 재판으로 나온 같은 책이 전해져서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제목은 1917년 판과 같지만 방신영은 저자가 아니라 ‘찬(撰)자’로 나온다. 왜 저자가 아니라 찬자일까? 그는 1921년에 출판한 <조선요리제법>에서 그 사정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수년 전에 한 책을 편술하여 그 이름을 <조선요리제법>이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시 경험이 없는 가운데서 된 일이라 미흡한 점이 많았는데, 특별히 부록 중에 술 만드는 법 같은 것은 본시 제가 기입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더욱 유감으로 여기는 바 이번에 그 내용을 대개 교정하고 증보하여 일신케 해서 제3판을 출판케 하옵나니’라고. 이런 탓에 1921년 판 책에서는 방신영이 ‘저자’라고 당당하게 표기되어 있다. 당연히 그 내용도 일부 달라졌고 책 제목은 아예 <조선요리제법>이다.

사실 1918년 판 책에는 약주 제조법을 비롯하여 과일과 채소 두는 법, 기름 짜는 법과 쓰는 법, 별록, 광주 백당법, 연안 식혜법, 용인 외지법 등이 실려 있었다. 그 내용은 대부분 병허각 이 씨가 편낸 <규합총서(閏閣叢書)>에서 옮겨온 것이다. 앞에서 방신영은 본인이 처음부터 이 내용을 기입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아마도 출판하는 과정에서 약주 제조법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더 잘 팔릴 거라고 출판사에서 방신영을 부추겼을지도 모를 일이다.



1921년 판 <조선요리제법> 미역국



1931년 판 <조선요리제법> 미역국

불분명했던 조선의 제량 단위를 개선하고 재료를 별도로 서술한 1931년 판

그래도 1921년 판에서 그 사정을 밝혔으니 그 기개가 대단하다. 하지만 이 책에서도 조선후기 조리서에서 지속되었던 서술방식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가령 미역국 조리법을 어떻게 적었는지 살펴보자.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의 한국어로 옮겼다. ‘미역을 물에 담가 확실히 불려 깨끗하게 빨아서 간장과 기름과 고기를 익혀서 넣고 한참 주물러서 솥에 넣고 불을 조금씩 때어 솥이 깨지지 아니할 만큼 한참 볶다가 물을 붓고 간을 맞추어 다시 한참 끓여서 먹나니. 또 홍합과 강고도리(물치다래의 살-필자 주)를 넣어 끓이면 맛이 매우 좋으니라.’ 이렇듯이 조선시대의 조리법 서술방식은 요새 요리책에 나오는 방식과는 달랐다. 마치 어머니가 딸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조리법을 조곤조곤 이야기하듯이 적혀 있다.

하지만 1931년 판 <조선요리제법>에서는 그 서술방식이 바뀌었다. 먼저 그 전에 없던, 재료에 대한 서술이 추가되었다. ‘미역(빨아서 썬 것 반 사발), 과 한 뿌리, 고기 이십 문(二十文), 물 세 사발, 간장 한 종자, 깨소금 반 숟가락, 기름 반 숟가락’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조리법도 살펴보자. 이 역시 지금의 한국어다. ‘미역을 정하게 빨아서(우거서 맑은 물 나도록 빨 것이라) 잘게 썰어 솥에 넣고 고기를 잘게 이겨 넣고 파도 잘게 이겨 넣고 기름과 깨소금을 치고 그대로 불을 때어 볶다가 고기가 익은 후에 간장을 치고 저어가면서 볶아가지고 물을 붓고 다시 끓이나니 한소끔 펄펄 끓은 후에는 완화로 한 십오 분쯤 더 끓여서 푸나니라.’

조리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1921년 판의 내용과 1931년 판의 내용이 약간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재료 서술에서 고기 이십 문의 문(文)은 일본식 한자로 관(貫)의 1000분의 1인 3.75g을 가리킨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방신영이 1925년부터 2년 동안 일본 도쿄에 있던 영양학교(榮養學校)로 유학을 갔기 때문이다. 이 영양학교는 일본 영양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이키 타다스(佐伯 矩, 1886~1959)가 1924년에 개교한 영양학 교육기관이었다. 오늘날 사이키 영양전문학교(佐伯 榮養專門學校)로 이름을 바꾼 이 학교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설립된 영양학 전문학교였다. 1926년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방신영은 신문에 소개될 정도로 화제였다(조선일보 1926년 3월 23

일자, ‘금년 해외에서 업을 마칠 여성들’). 이미 <조선요리제법>의 출판으로 이름이 났던 그에 대한 당시 조선 지식인들의 관심 덕택이었다. 당시 지식인들은 방신영을 조선 최초의 근대 영양학자라고 높게 평가했다. 방신영의 주장도 신문지상에 자주 소개되었다. 가령 동아일보 1927년 1월 3일자에서 ‘조선요리는 다른 나라 음식에 비하여 영양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또 만드는 시간이 불규칙하며, 중량이 너무 많아 경제적으로 보아 남의 나라 음식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가정에 주부되는 이는 특별히 음식에 대한 이 세 가지 점(영양, 시간, 경제)을 연구하고 개량하여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그 결과가 1931년 판 <조선요리제법>에 반영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재료를 별도로 표기하는 조리법 서술과 함께 이 책의 목차에는 ‘요리용



방신영

어에 해석, ‘중량 비교’, ‘주의할 사항’ 등의 항목이 들어갔다. 특히 중량 비교에서는 조선의 종래 계량 단위를 ‘문’으로 환산하는 계산표가 제시되었다. 가령 간장 한 종자는 26문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대략 97.5g이 된다. 하지만 도량형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던 당시 조선에서 계량 단위는 사람 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 같은 종자만 해도 기름 한 종자는 19문, 물 한 종자는 20문, 설탕 한 종 자는 11문으로 표기하였다. 비록 ‘문’으로 통일시켰지만, 방신영은 조선음식의 조리법에서 불분명 한 계량 단위를 처음으로 정리한 영양학자라고 할 수 있다.

표절본이 발견되어 저작권 침해소송을 치르기도

방신영은 1929년에 이화여전에 가사과가 창설되자 그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교수가 되었다. 그런데 1933년 방신영은 경성지방법원 민사부에 저작권 침해소송을 낸다. 소송 대상자는 종로 2정목 84번지 책장사 강의영(姜義永)이었다. 소송 청구문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조선요리제법>이라는 책을 발행하여 오늘까지 제4판을 세상에 내놓았는데 피고는 동책자를 형 식만 바꾸어놓고 거의 동일한 내용의 <조선요리제법>이란 책을 발행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 해하였으니 그 배상으로 전기 금액(2,500원)을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이 소송에서 방신영은 승소 를 하였다.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원을 지불하고 이로부터는 원고가 지 은 <조선요리제법>이란 책을 발매하지 말라.’ 식민지 시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였던 <조선 요리제법>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다.

식민지 시기, 독신 여성지식인이었던 방신영은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는 1927년 5월에 조직된 항일여성운동 단체인 근우회(槿友會)의 창립발기인 명단에도 올랐다. 하지만 같은 이화여전에 있었던 김활란 등과의 관계 속에서 조직된 이 근우회의 창립멤버들은 1931년에 해산된 이후 친일적 행각에 앞장섰다. 방신영 역시 조선총독부가 주도한 생활개선훈동에 참여하 여 자신의 전문 지식을 제공했지만, 그렇다고 김활란을 따라서 위안부 모집에 나서지는 않았다. 또한, 당대의 사람들이 방신영의 <조선요리제법>을 무조건 칭찬만 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요리 제법> 그대로 음식을 만들었다니 짜지 않으면 싱겁고 타지 않으면 설더라’는 혐구도 있었다. 그만큼 조선음식의 근대화와 표준화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제각각 입맛이 달랐기 때문이다.

방신영의 1931년 판 <조선요리제법>은 오롯이 자신의 어머니 최 씨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우리조선 집집이/ 우리 동무 손마다/ 이 책이 놓여 있음은/ 어머니의 크신 사업이요, / 크신 선물입니다./ 그리하여 이 열매를/ 어머니 령 앞에/ 삼가 드러나이다./ 경오년 선달 끝날 밤에.’ <어 머님 령 앞에>라는 제목을 붙인 이 글을 통해서 조선음식의 근대화와 표준화의 출발은 방신영의 어머니 솜씨로부터 비롯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직도 무수한 어머니들의 솜씨가 기록되지 않 고 사라진다. 이 땅의 자녀들이여, 여러분도 ‘어머님의 령 앞에’ 바치는 요리책을 쓰지 않겠는가! ♪

필자소개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학원 민속학 전공 교수로서, 전근대와 근대 사유의 생활이 혼재되어 있는 19~20세기에 관심 의 촉을 두고 우리 음식을 연구 중이다. 저서 책으로는 <음식 인문학-음식으로 본 한국의 문화와 역사> 등이 있다.

박창현의 수려한 유숙

글 박창현
사진 김종오

비움과 채움을 새로 배움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유숙(留宿)’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집에서 묵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남의 집에 머물며 나를 바라보는 행위로 재정의하고자 한다. 다른 이의 집에서 밥을 먹고 잠을 청하는 동안 우리는 일상과 다른 시공간을 경험한다. 그러는 동안, 지난 나를 투명하게 바라보게 되며 그 바라봄은 치유와 충전으로 되 돌아온다. 우리에게 더욱 많은 유숙이 필요한 까닭. 나는 앞으로 길을 떠나야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숙박지를 소개할 예정이다. 누구라도 며칠 유숙하며 ‘삶’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곳, 또한 건축 미학적으로 독보적인 가치를 지닌 공간을 건축가의 시선으로 소개하겠다.



비움의 미학 안에서 고요하고 잠잠해지네

처음으로 소개할 곳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태화산 아래에 위치한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건축가 승효 상 씨가 설계한 건물인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가까이에 유구한 역사와 절경을 지닌 마곡사가 있다. 얼핏 숙소 같지 않게 들리는 이름의 이곳은 2009년에 문을 열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엔 스님들의 수행과 일반인들의 템플스테이를 위해 300명이 묵을 수 있는 숙소와 대규모 연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그렇기에 회사에서 단체로 워크숍을 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다. 내가 예약한 11월에도 네 건의 단체 예약이 잡혀 있었다. 설령 일반인들이 예약을 해도 각기 떨어져 있는 동으로 방을 배정하므로 ‘확자한 소음에 시달리겠다’는 걱정은 접으시라. 이곳에 와서 맨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지붕이 기와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불교라고 하니 절을, 절이라고 하니 당연히 기와지붕을 연상했는데 건물 그 어느 곳에서도 기와를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의식하게 된 한 가지는 건축물에 사용한 내외부 재료에 색이 없다는 것이다. 승효

상 씨는 ‘비움’ 개념을 건물에 많이 도입하는 건축가다. 그는 ‘비움’을 형태 면에서는 전통과 미니멀리즘하게 연결하고 재료 면에서는 컬러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갈하게 표현했다. 그 덕에 이곳에 머무르는 내내 몸도 마음도 깨끗이 정화되는 느낌이 들었다. 화려한 형태와 컬러로 뽐내듯 자신을 내보이는 상업적 숙소와는 달랐으므로, 이러한 특질은 깊은 산중의 자연과 어우러져, 이곳을 찾는 이들이 고요한 휴식 속에서 치유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큰 운동장을 중심으로, 문화원 관리 및 연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건물과 숙소와 식당으로 이루어진 건물. 가운데에 운동장으로 남겨둔 부분은 공사 중에 가마터가 발견되어 비워두게 되었다고 한다. 아마도 마곡사를 지을 때 필요했던 기와를 만들어내던 가마터가 아니었을까.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강물이 흐르므로 가마터로 적당한 위치였을 것이다.

텅 빈 마당을 중심으로 방과 채가 하나로 모이네

연수 관리동에서 열쇠를 건네받은 후 숙소동까지 강을 끼고 걸었다. 차를 가지고 갈 수도 있었지만 그리 먼 거리도 아니거니와 날씨가 청명하여 가을의 햇살을 느끼고 싶어서였다. 숙소는 한 동마다 약 열 개의 방이 있고 각각의 동은 조그맣고 내밀한 마당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마당은 우리의 전통과 닮아 있는 것이다. 우리 옛 건물들은 건물 자체보다 방과 방 사이, 건물과 건물 사이가 더 중요한 공간이었다. 즉 단일 건물보다 집합으로서의 건축적 조화가 우선이었다는 얘기다. 그리고 그 집합의 중심에 놓여 있는 ‘비워진 공간’인 마당이 우리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동시에 중요한 개념이다. 우리 마당은 집과 동떨어져 대립적 요소로 사용된 서양의 정원과는 다르고, 관상의 대상으로서 이용되는 일본의 정원과는 아주 다르다. 우리의 집은 텅 빈 마당을 중심으로 방과 채가 도리어 하나로 묶여 진다. 채는 큰 규모에서 느껴지는 부담을 덜기 위해 높아봐야 3층 규모로 지어졌다. 여기에 각각의 채를 연결하는 길이 더해지니 자그마한 마을을 보는 듯도 하다.

간결하게 정돈된 방 안으로 바깥의 자연이 채워지네

숙소동에 도착해서는, 마곡사 쪽으로 열려 있어 전망이 가장 좋고 별도의 작은 방이 딸려 있는 '가'동의 방을 선택하였다. '가'동의 각 방은 연못이 있는 작은 정원을 공유하며 배치되었고 마당 쪽으로 방의 문이 나 있다. 모든 방이 평등하다. 현관으로 들어가면 우선 작은 방이 나오는데 그 방에 고여 있던 온기가 내 피부를 감쌌다. 방이 사람에게 첫인사를 건네는 방식이랄까. 따뜻한 햇볕이 반투명한 전통 창호지를 거쳐 들어오고 바닥은 요즘 보기 힘든 전통 방식의 '궁뎅' 종이 장판지로 마감되어 더욱 정겹다. 서양식 숙소만 보다가 한옥도 아닌 건물에서 창호지와 종이 장판을 보니 신선하게 느껴진다.

내부의 마당과 방 건너 외부 전경은 유리창으로 연결되어 있고 창호지로 마감된 목재창호는 빛을 조절해 준다. 가구라고는 좌식 한식에 어울리는 간결하고 낮은 탁자뿐이다. 거실로 보이는 방 옆 미닫이문을 열면 작은 침실이 있는데 불박이장을 열어보니 소담한 한식 이불이 정갈하게 놓여 있다. 단출하면서도 정갈한 분위기는 내부에 들어오는 빛과 외부의 풍경을 더욱 많이 눈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편안한 기분을 만들어준다. 외부 자연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이유는 건물과 방 내부를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비워냈기 때문이라.



© 박지현



TV 대신 아련한 추억을, 침대 대신 온돌의 온기를 채우네

다른 숙박에는 있지만 여기에는 없는 것이 있다. 바로 TV. 도시에 밤이 깊으면 집집마다 가족들은 TV 앞에 모여든다. TV가 없는 이곳에서는 밤에 무엇을 해야 할지 영 막막해질 수밖에. 그러나 그 막막함을 지나면, 일상에서 우리에게 익숙하던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지배하고 있었는지 알게 된다. 도심지의 집 안에서 외부를 바라보는 시간을 얼마나 가졌던가 하는 반성도 찾아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침대가 없다. 이곳의 방은 2인용 침대가 겨우 들어갈 정도의 크기이다. 하나 밖으로 열린 큰 창 덕에 방의 크기는 결코 작아 보이지 않는다. 침대 대신 장 속에는 이불과 두툼한 요가 마련 패 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닥에서 자면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그 이유도 침대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침대가 아니라 요에서 자면 방이 좁다거나 천장이 낮게 느껴지지 않는다. 게다가 따끈하게 데워진 온돌은 사람의 몸에 참 이롭다. 그 옛날 아궁이에 불을 때던 시절, 아랫목에 두툼하게 깔아둔 요 밑에는 밥공기와 더불어 긴 밤을 함께한 온기가 있었다. 은은하고 우아한 색실로 바느질한 두툼한 요를 깬 후 적당한 무게로 내 몸을 포근히 감싸주는 이불을 덮고 누우니 어릴 적 추억이 아련해진다.

아침 해의 싱그러운 기운을 받으며 지역 특색이 담긴 미더운 음식을 먹네

다음 날, 이름 모를 새가 단잠을 깨운다. 새들의 맑은 지저귀음을 듣고 있자니 아직 꿈속에 머무르는 기분이다. 창호지 틈으로 아침별이 살며시 스민다. 일곱 시면 아침을 먹으러 내려가야 하니 서둘러 이부자



리를 정돈하고 밖으로 나선다. 일곱 시부터 여덟 시까지인 아침식사 시간은 스님들 조식 시간에 맞춰 있는 듯하다. 마곡천 계곡과 어우러진 산새를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식당은, 게다가 남향이라 아침 해의 기운을 고루 받으며 밥을 먹을 수 있다. 하루의 시작부터 호사다. 음식 또한 좋다. 식단이 날마다 바뀌는데 채식을 원칙으로 주변에서 구한 친환경 재료만을 사용한다. 전망이 아름다운 곳에서 나누는 미더운 음식의 맛은 세상 어떤 것보다 바꾸고 싶지 않은 즐거움이다. 그 마을에서 나오는 재료로 만든 음식을 제공한다는 사실에는 여러 의미가 담긴다. 하나는 주변 마을 주민들과의 상생을 복돋는다는 것, 다른 하나는 그곳만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다. 지역의 특색이 담긴 음식을 즐기는 것은 여행의 큰 기쁨 중 하나이다.

이른 아침식사를 마친 뒤 산책삼아 근처 마곡사로 향했다. 마곡천을 건너 십오 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 발걸음은 느긋하다. 둘레길을 걷노라면 스님들이 다정히 아침 인사를 건넨다. 단풍 사이로는 절 지붕 위 기와가 언뜻 비치고 처마 끝에 달린 풍경 소리는 아침의 고요함을 가로지른다.

불게 물든 단풍과 함께 마곡천의 물소리가 마음을 맑게 정화해주는 이곳. 전통불교문화원은 무위(無爲) 즉,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은' 진정한 힐링을 위한 장소로 소개하고 싶다. 여행을 왔으니 반드시 체험해야 하고 먹어봐야 하는 부담으로부터 이곳은 자유롭다. 무엇을 하지 않아서 좋고, 무엇을 계획하지 않아도 좋다. ♪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위치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604번지

전화번호 041-841-5050

규모 대지-약 1만 평

교육행정동 850평

숙방후생동 890평

주요시설 교육연수시설(600명),

숙박시설(300명),

주차시설, 식당, 휴게소

설계 이로재건축사사무소(승효상

www.iroje.com)

완공 2009년



필자소개 **박창현** 학부에선 체육과 학생인 듯 착각하며 미술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선 철학과 학생인 듯 착각하며 건축을 전공했다. 현재는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며 대학에서 건축을 가르치고 있고, 종종 여행 중의 공간을 다른 에세이를 쓴다. 설계 대표 작업으로는 <SKMS 연구소>, <서교동 도심형 주택>, <G cafe> 등이 있다.

문 없는 카페로 들어가자



나는 도시의 카페를 좋아한다. 그곳은
편안한 의자로 가득 차 있고 웅성웅성
사람들이 내는 소리가 늘 듣기 좋게 퍼
진다. 점원과의 간단한 대화로 달콤함과
따뜻함, 청량함 등을 주문할 수 있다.
겨울이건 여름이건 상관없다.

또 그곳은 책을 읽기에도 좋고 간단하
게 요기를 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다. 그
냥 앉아서 쉴 생각이라면 그보다 좋은
장소도 아마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곳이 한 잔의 차를 마시기 위한 최고
의 장소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른
곳, 더 좋은 장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은 항상 물소리가 들리고, 나무들
이 뽀곡하다.



도시에서 숲 찾기



어쩌면 억지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다. 내가 지금 얘기하려는 ‘완벽한 장소’는 다름 아닌 집 근처의 숲이니까. ‘숲’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대부분 큰 나무들이 가득한 울창한 공간을 떠올리겠지만, 지금은 그보다 규모가 작은, 우리 가까이에 있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숲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용한 숲 말이다. 경우에 따라 숲의 규모는 다르겠지만, 내 경우에는 다섯 그루의 나무가 모여 있는 곳도, 4차선 도로 바로



옆에 있는 공간도, 그곳에 풀과 나무가 있다면 숲이라 여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도시에서도 꽤 괜찮은 공간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 사실 도시에서 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도시와 어울리는 사람이 된다. 사람의 적응력이라는 게 생각보다 대단해서 어떤 환경에 속해 있던 얼마만큼 시간이 주어지면 그 환경에 이내 적응하게 된다.

어느 날 문득 손을 들여다봤을 때 생각보다 손톱이 길어져 있는 것처럼, 도시 생활에 적응하는 것 역시 슬금슬금 진행이 되는 것 같다. 일단 도시 생활에 적응이 돼버리면, 숲이라는 공간은 정말로 따분하게 여겨진다. 그곳엔 ‘재미’를 위한 그 무엇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한번 놀아볼까!’ 잔뜩 부푼 사람이라 할지라도, 숲 한가운데 데려다 놓는다면, 몇 분간 두리번거리다가 금세 진지한 상태가 돼 버릴 것이다. 다른 이들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까만 개미처럼 머뭇머뭇 적당히 움직이다가 기껏해야 건강에 대해 얘기하거나, 등산 장비를 자랑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곤 한다. 정말 숲에서는 할 일이 그런 것뿐일까?

나는 그럴 리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물론 숲으로부터 여전히 막막한 느낌을 받고 있지만, 그와 함께 자유로움에 관한 속삭임도 듣고 있다. 한 가지 얘기밖에 하지 못하는 간판들과 못생긴 건물들이 없고 당연히 횡단보도 같은 것들도 없다. 숲은 거주장소라는 이름과는 전혀 없는 곳이다. 생각하기에 따라 이곳은 완벽하게 따분한 곳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완벽하게 평화로운 곳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나는 사실 그 중간쯤에서 서성거리는 어설픈 도시 사람이지만, 어쨌든 나의 호기심은 도시보다 숲 쪽으로 가 있다.

여하튼 나는 숲에 대해 생각했다. 그곳에서 과연 무얼 하고 싶은지 가만히 생각해봤다. 카페에 멍하니 앉아 한 동안 벽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는 나무와 바람, 고요함 같은 단어의 이미지를 떠올렸다. 부쩍 추워진 날씨 때문에 따뜻한 홍차 한 잔이 손 안에서 제값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나는 멍쾌한 생각을 하게 됐다.

“숲에 가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실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군!”

단출한 준비물

숲이 가지고 있는 깨끗하고 상쾌한 분위기가 좋다. 아름답게 어우러진 나무들과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여유로운 생물들 그리고 무엇보다 넓고 조용하다는 것. ‘따뜻하고 맑은 한 잔의 차를 마시기에 그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을까?’ 그런 곳에서 두꺼운 옷들을 모조리 꺼입고 감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컵을 쥐고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하니, 정말이지 기분이 좋아졌다. 물론 겨울이라는 계절의 문제가 있겠지만, 이 역시 생각을 조금 바꾸면 컵 속의 따뜻함을 부각할 만한 ‘좋은 조건’으로 여길 수 있다. 숲 속 카페에 들어서기 전에 나는 스스로 몇 가지 조건을 정했는데,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차를 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곳, 도착하기 전에 보온병에 담긴 물이 식지 않을 만큼 가까운 곳, 겨울을 제대로 구경할 수 있는 곳.’

나는 정말이지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나서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싶었다. 그 외에 더 바라는 건 전혀 없었다.

1.9리터 물을 담을 수 있는 큰 보온병에 끓는 물을 가득 담고, 컵 두 개가 들어있는 캠핑용 장비를 챙겼다. 스테인리스로 된 부분을 따로 분리해 주전자처럼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었다. 마지막으로 집에 있던 말린 찻잎을 작은 용기에 담았다. 그걸로 모든 준비가 끝났다. 혼자서 숲에 가면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좋아하는 친구를 설득해 만날 약속을 잡았다. 생각해보니 혼자 가게 된다면 지금처럼 큰 보온병은 필요 없었다. 컵도 하나면 되고, 어쨌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넓고 가장 조용한 자연 카페



숲에 들어서자 역시나 한가한 기분이 들었다. 터벅터벅 내 발걸음 소리를 계속 듣게 될 정도로 조용했다. 그런 식으로 내 숨소리나 심장 소리들이 차례로 들려왔다. 나뭇가지들은 대부분 비어 있었다. 어떤 지 여느 때보다 단단해 보이는 나뭇가지들 위에는 나뭇잎 대신 오후의 햇살이 반짝거리고 있었다.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빛이었다. 온도가 낮아서인지 오히려 겨울의 햇빛이 다른 계절의 그것보다 유난히 눈이 부신 것 같다. 정확히 설명할 수 없지만, 가을의 햇빛을 떠올려봤을 때 확실히 다른 느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한 번 그런 빛을 보고 났더니 보이지 않았던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 전부 보였다. 바위에 알알이 박힌 은빛 부스스리기들도, 보온병의 뚜껑도 빛났다. 그리고 아직 얼지 않은 시냇물도 빛나고 있었는데, 시냇물의 경우에는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춤을 추는 것처럼 화려하게 움직이며 빛을 냈다. 물살 때문에 그런 것 같았다. 그건 오래도록 보고 있어도 질리지 않을 만큼 아름다웠다. 우리는 솔방울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도 하고, 홀로 짙은 녹색을 띠고 있는 나무도 실컷 구경했다. 초록색 잎을 두





르고 있지만 웬지 겨울과 아주 잘 어울렸다. 빨간 양말을 대충 걸쳐 놓기만 해도 크리스마스트리로 손색이 없을 것만 같았다. 우리는 그렇게 지그재그로 걸어 다니다가 널찍한 바위 위에 걸터앉았다. 보온병의 뚜껑을 열었더니 하얀 수증기가 뿜어져 나왔다. 우리는 가장 넓고 가장 조용한, 거추장스러움을 완벽히 털어낸 카페에 도착한 것이다.

한 모금의 깊은 따뜻함

집에 있던 찻잎은 장미를 말려놓은 것이었다. 그걸 뜨거운 물 위에 적당히 띄워놓고 5분 정도 기다린 뒤, 각자의 컵에 담아 마셨다. 후후 불 때마다 따뜻한 바람이 올라와서 얼굴을 녹였다. 특히 얼어 있던 코 끝에서 짜릿한 감각이 느껴졌다. 우리는 1분 정도 아무 말이 없었다. 코를 사용해서 숨을 깊이 들이마시거나 먼 곳을 바라보며 1분이라는 시간을 사용했다. 그러다가 속이 데워지는 느낌이 좋아서 숨을 크게 내쉬었을 때, 하얀 입김이 얼굴을 거의 다 뒤덮었다. 장미차 한 잔으로 몸 안을 전부 데울 수 있다는 사실에 조금 놀라기도 하며 충만한 기분을 마음껏 즐겼다. 친구의 하얀 얼굴도 보기 좋았다. 우리는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산에서 내려왔다. 다시 도시로 돌아와 시간을 따져보니, 집에서 출발한 뒤로 한 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흘러 있었다. 

필자소개 **전진우** 경기도 의정부에서 유년과 청년 시절의 대부분을 보냈다. 그곳에서 책을 읽고 수영하고 친구들을 만났다. 거의 모든 구역을 걸어다녔다. 근처에 사는 몇몇 친구들을 모아 이동극장을 만들고 아무 데서나 영화를 보며 놀았다. 현재 <AROUND>라는 매거진의 기자로 일하고 있다.



겨울밤, 방 안에서 영화로 지구별 여행하는 법

손끝까지 시린 계절이다. 이런 날씨에는 누구나 누에고치처럼 이불로 몸을 말고 방구석을 파고들며 귀차니스트가 되기 마련. 그런 와중에도 여행에 대한 욕구가 활어처럼 팔딱거리는 당신께 이 코너를 바칩니다. 당장 문을 박차고 나가 지구별을 모험하는 행동주의자는 될 수 없을지라도, 집 안에서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각지의 판타스틱한 광경을 담은 영화들로 방 안에서 세상을 탐험하라~. 엄통이 쫓기해지고 동공이 확장되는 영화 속으로의 여행, 떠나보실까요?

파리가 숨겨둔 사랑의 얼굴

<사랑해, 파리>

'파리' 하면 낭만이 떠오른다. 발길 닿는 대로 걸다 보면 소울메이트를 만날 것 같은 도시. <사랑해, 파리>는 이런 낭만의 도시, 파리 곳곳을 보여주는 영화다. 스무 명의 감독이 파리를 배경으로 각기 다른 18개의 사랑 이야기를 선술한다. 에피소드당 5분이라는 턱없이 짧은 시간의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영화는 사랑의 감정을 유려하게 풀어낸다. 몽마르트르 언덕, 마레 지구, 센 강 등등 파리 전역이 배경으로 등장한다. 영화보다는 '파리, 이 도시의 사랑'을 주제로 한 사진집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에펠탑의 망원경으로 파리를 보는 것처럼 구석구석 파리의 풍경을 들여다볼 수 있다. **TIP 로맨틱한 파리여행을 꾸꾸는 이들**을 위한 '파리여행 입문 필름'.



인생은 계절처럼 변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김기덕 감독의 영화는 내 취향이 아니었다. 말랑한 감성의 영화를 즐겨보는 것도 아니건만 이상하게 그의 영화는 항상 불편했다. 그의 영화를 보는 밤이면 어김없이 꺼림칙한 꿈을 꿔다. 그런데 김기덕의 영화를 보고선 유일하게 꼭 봤던 영화가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그는 이 영화에서 사계절의 변화에 빚대 수도승의 일생을 조망한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산사의 경관은 자연의 숨고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이 영화를 보는 건 '자연 속으로 힐링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다. 그는 대사가 아닌 경이로운 자연의 신비를 담은 영상으로 인생이 어떻게 계절처럼 변하는지에 대해 얘기한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변함없는 진리에 대해. **TIP 영화의 촬영자인 경북 청송 주왕산 주산지는 초보 사진사도 카메라만 갖다 대면 작품이 나오는 명당으로도 유명.**



자연을 닮은 북유럽의 정서 <카모메 식당>

언젠가부터 주변에 북유럽으로 '떠나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들은 '여행'이 아니라 북유럽으로 '떠나고' 싶다고 말한다. 그건 아예 생활의 터전을 옮기고 싶다는 걸 뜻하는 거겠지. 지금 사는 이 땅을 떠나 다른 세계로 들어가고 싶은 것이다. 그들은 '자연을 닮은 북유럽의 정서'를 느끼고 싶어 한다. 숲을 산책하는 것처럼 평화로운 일상을 꿈꾼다. 그 소망을 영상화한 영화가 <카모메 식당>이다. 일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핀란드로 날아가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치에, 그녀와 주변인물들이 보여주는 핀란드에서의 생활은 도시생활에 지친 영혼을 조용히 위로한다. 여행보다는 여행지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

TIP 핀란드 헬싱키에 가도 아쉽지만 사치에의 소울 푸드를 맛볼 수 있는 카모메 식당은 없다. 대신 그 자리에 <Kahvila Suomi>라는 핀란드 전통 음식 전문점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질주하며 누아첸 인도의 찰나 <슬럼독 밀리어네어>

영화 포스터에 대니 보일 감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면, 꼭 챙겨봐야 할 장면이 있다. '질주 산이다. 그가 만들어낸 질주 신은 엄청난. 등장인물의 발광하는 심박수와 거친 숨소리가 스크린 밖까지 튀어 오른다. <슬럼독 밀리어네어> 역시 마찬가지다. 카메라는 인도의 빈민가를 달리는 소년들을 비춘다. 소년들은 뒤돌아볼 틈도 없이 뛰다. 감독은 달리는 소년들 사이로 인도의 찰나를 누아첸다. 형형색색의 천, 쓰레기 산, 순수한 눈빛들, 어둡한 골목. 직접 여행을 간다 해도 마주할 수 없는 '진짜 인도'의 면모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TIP** 이 영화는 특히 평소 인도를 동경하며 오매불망 인도 배낭여행을 꿈꿔온 이들에게 적극 권장한다. 그들이 직면할 인도는 발리우드 영화 속의 인도처럼 소비와 환상의 나라가 아닐 수도 있다.

내 꿈결 속의 무인도 <블루 라군>

유년시절, 아련פות한 기억 하나를 꺼내 든다. '무인도에 가게 된다면, 무엇을 가져갈까?'란 공상으로 하루를 탕진한 날. 이런 공상을 하게 된 건 <블루 라군> 때문이었다. <블루 라군>은 무인도에 단둘이 남겨진 소년, 소녀의 성장과 사랑을 다룬 영화. 쪽빛 바다와 하얀 모래가 반짝이는 해변, 바닷속을 유영하는 소년과 소녀. 정녕 '꿈결' 같은 무인도의 풍경을 담은 영화다. 많은 이들의 무인도 판타지는 이 영화로 말미암아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여주인공 브룩 실즈의 청초함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미소가 기억에 남는다. 그녀의 미소는 여행지에서 만난 낯선 사람과의 로맨스만큼 설렌다. **TIP** 블루 라군은 카리브 해변에 실제로 존재하는 해변.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연인과 단둘이 바닷속을 헤엄치는 달콤짜릿한 스노클링도 가능하다.

* 이 코너에서는 마음편은 여행 프로, 여행준비의 달인 임연두가 여행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여행을 부추기는 설렘 가득한 이야기를 풀어نا갈 예정이다.





첫번째 이야기. 어린 시절
카세트 테이프. 나는 1978년
에 태어났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동영상이 찍히는
휴대폰이 있는 시절도
아니었으니. 부모님은
자식들의 성장기록을
소리로 녹음 하셨다. 나도 어렵게

나와 내 동생의 30년전 목소리가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생긴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가는 녹음기 앞에 앉아
동생과 노래를 부르고 녹음된 걸 들어보고 했던게 생각이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
난다. ♪♪♪
이런 테이프가
많으면 좋겠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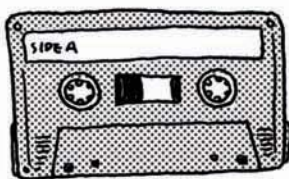
그 당시 테이프 가격이
비싸서 그랬는지
우리들 녹음용 테이프는
하나 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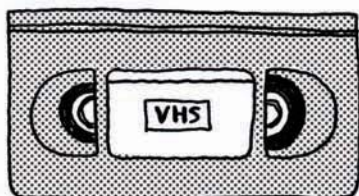
녹음, 재생 기능뿐

테이프가 하나 밖에 없어서 녹음을 하고 녹음된 걸 들어보고
다시 그 테이프에 녹음하고 또 녹음을 하고,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계속 테이프에 덮어쓰며 녹음을 하다보니 30년이 지난 지금
남아있는 건 가장 최근 (최근 이라고
해봤자 29년전?) 에 녹음한
1시간 분량 밖에 남아있지
않다. 가장 최근 29년전.





예전부터 한창 많이 사용하던 저장매체인
카세트 테이프 와 비디오 테이프는 요즘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지. 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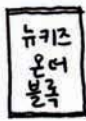
얼마전에 중학교 때부터 모아왔던
좋아하던 가수와 밴드의 카세트

테이프 수백개를 내다 버렸다.

10년 넘게 사 모으고 복사하고 보관하고

있었던 건데 카세트 플레이어

없으니 최근에는 들어본 적도 없고



들어볼 수도 없으니... 아깝긴 하지만
눈물을 머금고 이별을 고했다. 어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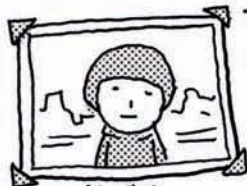
CD 와 DVD의 시대가 오고
나에게 카세트 테이프는
재생할 수 없는 저장매체
가 되어버렸다.



* 내가 처음으로 산 CD는 소방차 베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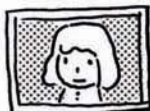
옛날 어렸을 적 사진이 곁에 있는 앨범을 책꽂이에서
꺼내 보지 않아도 그 존재만 봐도 추억을 떠올리듯이
이 '준이 은주 어렸을 적' 카세트 테이프도 직접
플레이 해서 들어보지 않아도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당시를 떠올릴 수 있으니 30년 전의 소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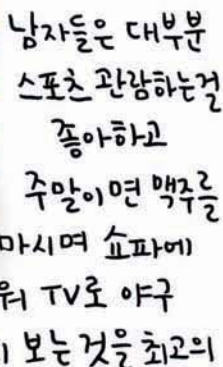


창경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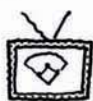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지만. 추억의 소리가
아니라 추억의 물건이 되어버렸다.

30년전 내
어린 시절의





낙으로



더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스포츠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야구보다는

농구를 더 재미있어하고, 어렸을 적에 친구들과 야구도 해봤으나.
그다지 재미를 못 느꼈었다. ○ ⊙ ⊙ ⊙ ⊙ ⊙ ⊙ ⊙



내가 어릴적 아버지는 아들이 태어났으니 (대부분의 남자들이 좋아하는) 야구를 같이 즐기길 원했고 주말에는 집앞에서 야구클럽을 끼고 캐치볼도 같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셨나보다. 그래서 야구클럽을 사서 내 이름까지 클럽에 새겨 넣으셨다. 그렇지만! 나는 캐치볼이 너무나 재미없었다. 제자리에 가만히 서서 공을 던지고 받고 이게 뭐여! 어렸을 적에 아빠를 따라 잠실 야구장에도 갔었는데 공수교대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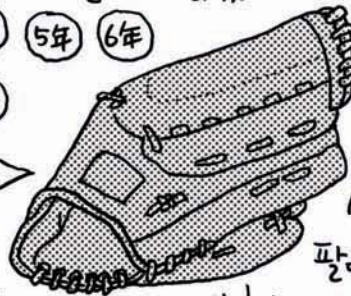
공 한 번 던지고 기다리고
그렇게 건행이 느린(?) 스포츠는
뭔가 성격에 잘 안 맞는 것 같다.



바로바로 달려가서 공격하고 수비하는 농구나 축구. 뭐... 뭐 등등.
야구보다 재미있는 스포츠가 더 많으니... 아무튼 나이가 들어가며
시간이 지나고 글러브는 항상 같은곳에 같은 상태로 있었고, 글러브에
손을 넣을 일은 거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또 흐르고 내가 결혼을
하고 부모님과 따로 살게 되면서, 어찌다보니 이 글러브는 또 나를 ...
따라 우리집으로 넘어왔고 여전히 서랍속 한 구석에 있었다. 
회사에서 베품시장을 했다. 자기가 안 쓰는 물건을 가져다가 회사 동료들
끼리 사고파는 행사였다. 나는 이 글러브를 베품시장에 내놓으려고 가져갔다.
거의 판매가 되기 직전에 글러브에 새겨진 내 이름을 보니 아버지의
얼굴이 생각나며 도저히 팔 수가 없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

공을 잡지않고 죽인을
잘못 만나



아마 앞으로 글러브를
꺼볼일은 없겠지만
다시 집으로 가져왔다.
아버지가 내 이름을
새겨준 글러브를
팔아버리려고 했다는
생각을 하니 부끄럽다



컴퓨터로
야구결과 확인



세월만 잡아먹은 글러브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 이야기



휴대폰으로
야구게임



해외
여행도
야구장 위주로

친구중에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 녀석이 있다.
이 친구가 나중에 아들이
생기면 같이 캐치볼하려고
글러브 사주고 그러겠지?
근데 그 아들은 나처럼 야구
싫어하는 애면 어쩌려나?



주말엔
직장인
야구단
활동

12월의 뉘앙스



1# 추억은 오늘을 두텁게 한다

12월이 되니 <안개 속의 풍경>이라는 영화가 생각납니다. 영화 속에서는 나이 어린 오누이가 아버지를 찾아 먼 길을 떠나지요. 말하자면 이 영화는 아버지를 찾아가는 긴 여행입니다. 거기서 이런 대사가 나왔던가요?

“사랑하는 아빠, 우린 낙엽처럼 여행하고 있어요.”

남매는 매일매일 역에 나가 아버지가 오기만을 기다리지만 아버지는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매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독일에 가기 위해 무작정 기차에 오릅니다. 그러나 무임승차였던 그들은 곧 쫓겨나고 경찰한테 잡혀 삼촌의 공장으로 가게 되지요. 거기서 삼촌과 경찰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됩니다. 독일에 그들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란 걸 알게 되지요. 그때 문득 눈이 내려요.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은 환호하며 거리로 뛰어나갑니다. 하늘에서는 흰 눈이 펄펄 쏟아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그 풍경 속에 그대로 멈춰버리지요. 마치 정물처럼 말입니다.

지난 시절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가벼울까요.

세상은 이제 멈출 수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내일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상품들이 쏟아져나오고 놀라운 혁신들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고 내일을 헤아리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게다가 지난 시간들은 도대체 돈이 되지 않지요. 하지만 자신이 태어난 이유를 위해 열심히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누구라도 회한이 없을 수가 없지요. 한 해가 끝나는 12월이 되면 누구라도 가던 길을 잠시 멈춰 서서 지난날들을 돌아보게 되니까요. 적어도 12월에는 내일을 향해 달리던 세상의 시계들이 잠시 멈춰 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계절의 도시를 걷다보니 어르신 한 분이 시계 가게에 서서 수많은 시계들을 골똘히 들여다보고 계시더군요.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세상의 모든 사라지는 순간들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젊은이들에게 흔히 말하지요. '미래를 향해 큰 꿈을 가져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 못지않게 소중한 것이 추억들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들의 욕망은 자꾸만 위로, 위로만 올라가지만, 사랑은 어쩌면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지요. 올라가려는 의욕은 세상에 끝없는 거짓 환영들을 만들어내지만, 내려가려는 의욕은 너무 부풀어버린 가상의 시간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워나가려는 마음입니다. 미래는 오늘을 부정하지만, 과거는 오늘을 두텁게 하지요.

친구의 집에 놀러갔다가 거실에 걸린 소박한 액자를 하나 보았습니다. 친구 아버님이 환갑 때 친구 분에게 받은 글씨더군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조용한 보통 날들

...상연과의 지난날을 생각하며 회갑을 맞아 동해가 써준다.



2# 아름다움을 닮으려 하지 않고 모든 걸 사냥하려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옥정호로 여행을 갔습니다. 옥정호는 임실군과 정읍시에 걸쳐 있는 거대한 인공 호수입니다. 이 계절 옥정호에 가면 운무와 물안개의 장관을 볼 수 있지요. 날이 추워지면 대기와 호수의 온도차로 물안개가 가득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풍경 사진을 찍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봤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지요. 신 새벽에 옥정호 한 편에 있는 국사봉이라는 암자에 오르면 바람이 많은 산 위라서 엄청 춥습니다. 그곳에서 덜덜 떨며 서 있다 보면, 어둠은 점점 가시고 거대한 규모로 운무와 물안개가 피어나지요. 그리고 해가 떠오를 즈음, 봉어를 꼭 닮은 '봉어섬'이 호수 한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계절이면 그 풍경을 사진에 담으려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밀려옵니다. 캄캄한 새벽 5시에 국사봉에 올라도 트라이포드 하나 세울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름다운 풍경을 앞에 두고도 자주 싸움이 일어나지요. 빛에 민감한 사진을 찍는데 랜턴을 비쳤다고 싸우기도 하고, 어두워서 셔터스피드를 길게 잡고 있는데 옆 사람 걸음걸이에 바닥이 울려 사진이 흔들렸다고 싸움이 일기도 하지요.

나는 그곳에 모인 사진가들을 보면서 씁쓸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사진을 찍으러 왔지만 그들은 그 아름다움을 닮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냥을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들의 사진기에 담긴 옥정호의 풍경은 어쩌면 그들이 쏜 총알에 상처 입어 피 흘리는 한 마리 순한 짐승일 겁니다. 성과란 일의 결과이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함부로 밀어붙이는 험한 의욕들은 상처만 남기지요. 나는 올라왔던 산길을 다시 내려가고 싶어졌습니다. 그 유명한 촬영지에서 고작 스냅 사진 한 장만을 남겨왔네요.

3# 가끔씩 정신이 들 때가 있었다

보통은 꿈속 같다고 말하지만 최근에 사랑을 시작한 B는 특이하게도 그 말을 이렇게 했다.

“... 가끔씩 정신이 들 때가 있어요.”

말하자면 사랑 속에 있는 그가 꿈속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이따금 정신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겠다. 그 말이 그 말이지만 그는 아무래도 좀 다른 발판을 딛고 사는 것 같다. 미묘한 차이지만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 B에게 어느 사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살한 남자가 있었어. 가방에 돌들을 가득 집어넣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하더라구. 시체가 떠오르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나 본데 시체는 뚝배기도 나뭇가지에 걸려 금세 발견되었다고 해. 경찰이 유족 앞에서 가방을 열어 돌들을 쏟아 부었는데 가족들이 그걸 보더니 오열했다더군. 그냥 막돌들이 아니고 하나같이 예쁜 돌들이었다더라. 평소 혼자 산을 다니곤 했다던데 그때마다 틈틈이 예쁜 것들을 주워 모았나 봐. 자신을 가리אות하는 데 쓰려고. ‘그는 이생에서 예쁜 돌들을 발견할 때마다 정신이 문득문득 들었던 걸까, 아님 정신이 나갔던 걸까?’ 아무튼 그는 이제, 가끔씩이라도 정신 못 들게 된 거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B는 나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잠깐 참혹한 표정을 짓다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내다봤다.

외따로 떨어진 산이라고 '외앗날'이라고 불렀으나,
이제 물이 들어와 봉어섬이 되었다.

깜깜한 새벽부터 고가의 장비들을 지고 전망대에 올라온 사진가들이
혹여나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셔터를 눌러댄다.
그들 중 누가 저 섬의 역사에 관심이나 있으려나.

섬진강댐이 건설되고 이 지역이 수몰되었을 때
목구멍이 찢어져라 부르짖고 싸우다 정말로 목이 맛이 가버린 한 사내를 저 섬에서 만났다.
가느다란 햇살이 우리가 앉은 자리 위로 비껴 비치고 있었다.
사방이 고요한 섬.
인상 좋은 그는 후두암 수술을 받고 이따금 봉어처럼 입을 뿡긋거렸지만
나는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날이 추워 봉어뿡이 생각나던
2012년 겨울, 옥정호 봉어섬.

필자소개 **유성용** 3년간 국어교사를 지낸 뒤, 돌연 자리산으로 떠나 농차를 덥었다. 그 후엔 중앙아시아, 인도, 네팔, 파키스탄 등을 떠돌며 살았다. 여러 곳을 유랑했고 여러 사람을 스쳤지만 언제나 글만은 놓지 않았다. 일상에 안착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아픈 성찰 끝에 스스로를 '여행생활자'로 명명했다. 그의 책 <여행생활자>와 <생활여행자>는 홀로 길 위에 올라선 수많은 여행자들에게 영혼의 지도가 되었다.



나도 그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창밖의 몇몇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다. 용일 철물, 보성 전자, 아람당 금은방, 감나무 집 칼국수... 도로에는 자동차들이 바빠 지나갔다. 그리고 마을버스를 기다리는 할머니가 한쪽 무릎을 손으로 짚고 서 있었다.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어린것들 몇이 그 옆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형광색 옷을 입은 청소부는 길가에 뒹굴던 낙엽 몇을 쓸어담고 있었다. 날은 춥고 하늘은 잔뜩 흐려서 문득 눈발이 날릴 것 같았다. 그 속에서 어쩌면 아무 것도 아닌 풍경들이 예쁜 돌들처럼 겨울 빛에 반짝거리고 있었다.

4# 12월엔 그대들의 안녕을 돌아보고 싶습니다

12월의 겨울 빛은 가늘고 짧습니다. 밤은 자꾸만 길어지는군요.

골목길을 걷다가도 나도 모르게 어딘가를 자꾸 돌아봅니다. 뭔가를 저 어디엔가 두고 온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훈훈한 어묵가게에 앉아 있다가도 창밖의 어둠을 자꾸 바라봅니다. 창밖에는 희끗희끗 성긴 눈발이 날리는군요. 이 세상에서 가뭇없이 사라져간 것들처럼 허공에서 잠시 얹치락뒹치락하다가 찬바람에 쓸려 어둠 속으로 흩어지네요. 사라져간 것들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걸까요? 어쩌면 그것들이 저 어둠 속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그 어느 해변에 다 모여들어 예쁜 돌들처럼 반짝일지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생에서는 그들을 다시 보지는 못하겠지요. 그저 우리는 안녕, 하고 짧은 인사를 건넬 수 있을 뿐.

시를 오래 읽지 않았는데, 우연히 인터넷 신문에서 젊은 시인의 시 한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나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누군가에 관한 구절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쩌면 우리의 이웃들이겠지요.



내 죄를 대신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대해
 내 병을 대신 앓고 있는 병자들에 대해
 한없이 맑은 날 나 대신 창문에서 뛰어내리거나
 알약 한 통을 모두 삼켜버린 이들에 대해

나 대신 이 세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희망하는 이들과
 나 대신 어두워지려는 저녁 하늘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검은 표비들
 나 대신 울고 있는 한 여자에 대해

진은영 詩 <고백> 中

12월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또 새로운 의욕을 품고 그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을 테지만, 적어도 12월에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그대들의 안녕을 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대들도 혹은 나도 언젠가는 저 희뜩거리는 눈발처럼 사라져갈 테니까요. 뜬금없는 소리 같지만, 어쩌면 12월에 성탄절이 있다는 것은 참 당연한 일입니다. 이 계절이야말로 세상을 채울 가장 낮은 사랑이 널리널리 울려 퍼질 만한 시간이니까요. ♪

자연에서 길을 찾다

글 이후
사진 김재룡

지구라는 거대한 부엌에서 미생물의 집을 짓는 사나이



미생물 농사꾼

우태영

경상남도 거창군 상천리. 차를 타고 간다면 쉬 지나칠 만한 평범한 동네다. 어쩌다 걸어가게 된다면, ‘웅기뜸골’이라는 투박한 글씨가 새겨진 흙벽 아래 장독들이 늘어선 집 앞을 잠시 기웃거리다 지나가지 않을까. 그런데 이 범상한 풍경 속에, 실은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소리 없이 들끓고 있었다.

웅기, ‘발효’라는 균들의 조화가 일어나는 곳

“웅기의 둥근 모습도 자연을 모방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생명의 공간들은 다 둥근 것 같아요. 콩알, 달걀, 사람 머리 그리고 모든 별들이 둥근 것처럼. 왜 그럴까?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어쨌든 그 형태가 실존에 유익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한 구 모양에서 위, 아래를 자른 것이 웅기인데 그 속으로 오랜 시간과 햇볕, 바람이 드나들면서 발효가 되는 거죠. 부채로 ‘살살살’ 부치고 약불로 은근하게 약을 달이듯이.”

웅기가 알에서 온 모양이라니 어쨌지 수궁이 가지 않는가. 완전히 배가 부른 모양이 아기를 잉태한 어머니의 배 같기도 하다. 더욱이 그 속엔 알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생명 에너지가 들어 있나니.

“고세균이라는 게 있어요. 지구의 초창기부터 살아온 미생물인데, 극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특성을 가졌습니다. 특히 장 속의 대표적인 고세균이 바실러스균이에요. 그 중에서도 서브틸러스라는 균이 있는데 온도나 습도에 따라 바로바로 새로운 종이 생기기 때문에 이 균은 딱히 몇 종류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어느 정도나 하면 서브틸러스

균 중, F1은 영하 198도에서까지 살고, 영상은 125도에서도 살아남아요. 그만큼 적응력이 뛰어난 거야. 지구가 그 정도까지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거나 올라간 적이 있던가요? 그러니 인류가 죽더라도 고세균은 살아남는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대단한 균은 어떤 과정으로 단련되었는가. 한여름의 폭염과 태풍을 이겨낸 콩을 오랜 시간 뜨거운 물에 삶고 치대 메주를 만든다. 이 메주 속에 860여 가지의 균이 살아있다니 과연 발효균들의 집이라 할 만하다. 이것을 다시 19도가량 되는 고염도의 물에 넣어 장을 만들게 되는데 이 과정을 거쳐 된장에는 사람에게 유익한 12~13가지의 균만 남게 된다. 열과 압력과 염도를 차례로 이겨낸 반짝반짝한 생명력이다. 명금을 만들기 위한 흑독한 담금질을 된장 만드는 것에 비할까. 그저 평온해 보이는 장독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미생물의 집이라 하면 제일 작은 집이 메주, 그 다음이 웅기 그리고 장독, 더 넓게 보면 대기관……。 그러니까 지구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부엌인 거죠.”

그래서 우태영 선생은 자신을 발효 전문가나 장을 만드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미생물 농사꾼’이라 지칭한다.

이천식천(以天食天), 하늘로서 하늘을 먹다

지구를 부엌 삼아 장을 만드는 사람이지만, 우수한 발효식품이 제대로 만들고 잘 먹어야 한다는 당위는 일절 내세우지 않는다. 미생물의 관점에서 보면 먹는다는 것은 그저 미생물의 순환체계일 뿐. 그는 이천식천(以天食天), 곧 하늘이 하늘을 먹는 일을 생각해보자고 말한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물이 사람의 몸에 들어와 새로운 차원으로 변하는 것. 소비가 아닌 승화, 그렇게 순환하는 구조.

“어쨌든 사람이 사람이려고 하면, 사람의 먹거리가 있어야지요. 갈증이 난다고 구정물을 먹진 않잖아. 물을 생각해 봐요. 사람의 몸 안에서 제일 깨끗한 물이 어디 있겠어요? 이치적으로 보면 뇌수가 아니겠어요. 물의 이치로 따져보면 땀물이 맑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가볍고 따뜻한 성질은 위로 승하는 거니까. 모든 생명과 마찬가지로 음식도 모두 그렇게 발전해왔어요.”

우태영 선생의 말에 의하자면 장을 담아서 뜸 때 맨 위부터 뜨는 게 옳다고 한다. 웅수라 하여 맨 위의 것을 떠서 찌개를 끓이는데, 먹을 때도 마찬가지로. 숟가락으로 얇게 살짝 떠서 윗물부터 먹는 게 좋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니 옛날 숟가락들을 보면 요즘 숟가락보다 훨씬 평평하고 납작한 모양이다. 바닥까지 깊게 떠서 먹는 서양의 스푼과는 좀 다르다. 우태영 선생은 이것이 윗물 문화라고 한다. 찌개의 윗물, 컵의 윗물, 나아가 뇌의 윗물. 가장 깨끗한 윗물은 정화를 뜻한다.

이 대목에서 소금 이야기가 빠질 수 없다. 된장을 만들기 전 소금 장수였던 그는 당장에 소금과 염의 차이를 아느냐 물었다. 소금과 염의 차이에 정확히 비밀이 들어있기에.

“염은, 한 마디로 그냥 자연물이에요. 바다라는 것은 지구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모든 역사가 집결된 곳인데 그것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것을 염이라 합니다. 사전에도 염화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80여 가지의 복합물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 천일염 생산이라 하면 일종의 자연 농사라고 할 수 있죠. 반면 소금은, 흠소 또는 비탕 소(素)에 쇠 금(金) 자를 써서 깨끗하게 정화된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자연물인 염 자체는 독성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 염은 흠



“웅기의 둥근 모습도 자연을 모방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생명의 공간들은 다 둥근 것 같아요. 콩알, 닭알, 사람 머리
그리고 모든 별들이 둥근 것처럼. 왜 그럴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어쨌든 그 형태가 실존에 유익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한 구 모양에서 위, 아래를 자른 것이 웅기인데
그 속으로 오랜 시간과 햇볕, 바람이 드나들면서 발효가 되는 거죠.
부채로 ‘살살살’ 부치고 약불로 은근하게 약을 달이듯이.”

우태영



관에 들어가면 고혈압을 유발시킨다. 간수의 염화마그네슘은 혈액을 되게 만들어 당뇨를 일으킬 수도 있다. 심지어 히틀러가 유태인을 학살할 때 사용한 황산가스도 염에서 추출한 것이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 발암물질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소란 원소는 다 붙어 있는 상태, 그것이 염이다. 한편 석의 특성은 불에 대한 반응으로 판별할 수 있다. 불 속에서 타버리지 않고 순도가 더 좋아지는 것이 쇠다. 선인들은 그 이치를 알았기에 염을 고열에 넣어 순수한 쇠, 즉 소금을 만든 것이다. 공기, 물, 태양과 더불어 인간에게 꼭 필요한 소금을. 이들은 모두 비영양적 요소로서 사람의 몸을 정화하는 요소이자 대체 불가능한 요소다.

직관과 상상력으로 역사를 잇다

이야기를 이쯤 듣고 보니, 저만치서 보글보글 끓는 된장 한 술에 침이 고인다. 장을 담고 먹는 행위 속에 상당한 수준의 종합 문화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굳이 콩 농사를 짓지 않아도 메주를 만드는 게 농사요, 적절한 시기에 소금물을 부어 장을 담그는 게 과학이다. 웅기 자체가 예술이며 햇빛, 햇살, 햇볕과 더불어 바람이 지나가고 사람의 정성이 더해져 발효되는 과정이 기도다. 장을 담고 먹는 것만으로 '수신제가'가 완성된다.





“미생물의 집이라 하면
제일 작은 집이 메주, 그 다음이 옹기,
그리고 장독, 더 넓게 보면 대기관…
그러니까 지구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부엌인 거죠.”



“뿐만 아니라 장은 없어질 때까지 먹는 게 아니라 대물림
하는 전통이 있어요. 예전에는 딸이 시집갈 때, 집 씨장을
혼수품으로 들려 보냈죠. 그렇게 며느리가 들고 온 친정
의 장이 시댁의 장과 덧장이 되는 거지요. 장 같은 안살림

은 딸이나 며느리에게 구전으로 전해지던 거라 문헌 자료가 참 귀한데, 신라시대 혼수품으로 썼다는 기록이 있어요. 혼수품뿐 아니라 추석이나 설 명절에 지인들 선물로도 가고요.”

집집마다 장을 담글 때 씨장 개념을 가지면 좋겠다고 선생은 말한다. 막걸리에 싸누룩을 넣고, 유기농 거름을 만들 때 몇 년 숙성한 거름을 섞어 쓰듯이 대물림된 씨장은 햇장의 엄마 역할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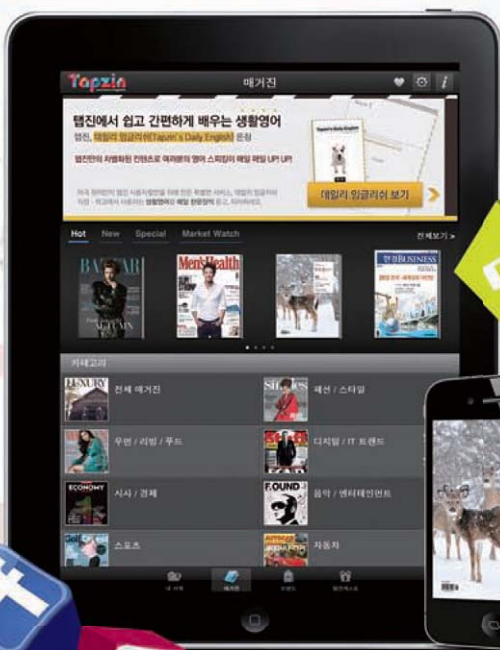
씨장의 발견을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까지 말하는 우태영 선생은 몇 년 전부터 뜻을 같이 하는 지인들과 함께 종자장 대동계를 통해 종자장 보급 운동을 하고 있다. 아울러 경남 지역 학교 아이들이 직접 장을 담가 급식에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종자장 연구소를 꾸리게 되면 각 광역 단위별로 종자장 보급소를 만드는 일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친 김에 각 대륙별로 하나씩 세워보자는 농 쉼인 소리도 그저 꿈만은 아닐 터.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는데 그가 만일 된장을 알았다더라면, 사과나무 대신 한 말의 장을 담겠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내일 종말이 온다 해도 이상할 것 없는 시절, 그의 말대로 단지 밥 하나 잘 먹는 것조차 복잡하고 힘든 이때에 묵은 된장들이 이 땅의 곳곳에 버티고 있어 준다는 게 고맙다. 상상만으로도 된장국에 밥 말아 먹은 듯 마음 든든해진다. ♪

지금 **탭진**하세요

애플, 안드로이드 태블릿, 스마트 폰 어디에서나 탭진



최신 잡지 포털 앱, 탭진에서 언제 어디서나 **최신 잡지**를 무료로 즐기세요.
음원듣기, 동영상감상, 지도보기 등 읽는 재미와 브랜드 체험과 이벤트 참여까지

지금 **탭진**하세요!



네네치킨의 매운맛 중 알정바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합니다

네네치킨

1599-4479

새해

다가오는 새해에는 좋은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네흑임자치킨



네네마늘치킨



오리엔탈파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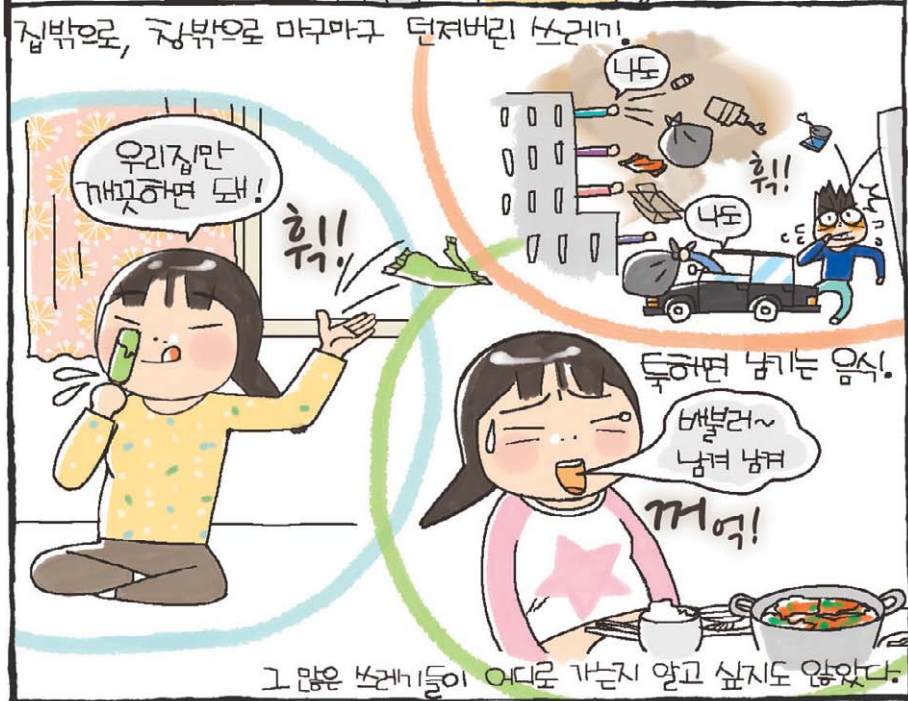
네네치킨
Happy Choice!

네네치킨의 모든 메뉴는 HACCP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생산한 100% 국내산 닭고기를 사용합니다.
www.nenechicken.com

산소가 가장 많이 녹아있는,
가장 맛있는 물의 온도 [사도씨]



■ 최현정의 Eco Life-1 ■





하루에도 몇번씩 온가족이 마구마구
열고닫는 냉장고 문.

마구 켜놓고 잠들어버리기 일쑤인
심야시간 TV.



난 그냥~ 내가 불탄현관
못 잠았을 뿐이지...



여름엔 덥다고 에어컨 바람바람!!



겨울엔 춥다고 보일러 풀가동!!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온종일 컴퓨터 앞.

이동중엔
스마트 폰.



늘 트렌드와 대세에 열광하고



예쁘고 고운것만 보려는 욕심에



맛있는 것만 먹으려는 욕심에
식탁을 흐트러진 혼란 조미료!



바삭바삭하게
바삭바삭한 어디로고
왜 조미료 맛만 날까?

난 괜찮은데
왜?

귀찮고 힘들다는 이유로 나만 편하면 돈다는
욕심과 극도로 치닫는 인간의 야망에



나만
편찮하면
도하!!

후기!!



우리 아이들에게 남지 않아 할 유산,
자연환경은 병들어가고 있었다.

영차~!!

헐~

이렇게 아무생각없이 했던 우리의 고질적인 습관들 때문에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환경이 상처를 입고 세네곳곳에서 우리의 지구가 울통불통 큰 몸살을
앓고있다.



S.O.S!!

바둥바둥~

우리 인간에 의한 재난과 재해로부터 더 이상의 큰 피해를 막고자 앞으로
『최현정의 4℃』에서는 자연과 환경에 관해 함께 생각하고 우리 이웃의
이야기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방법을 하나씩
소개하며 귀띔하고자 한다.

크고 장황한 것이 아닌
비록 작고미한 형식에도
한 사람의 열 정보다
열 사람의 한 정이
더욱 큰 힘을
발휘하게 되게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요!
아자 아자
바빠서
호이팅!!

좋은 아이디어와
의견을
함께 나누요!

새해 계획의 진짜 역할

대한민국의 연말연시는 혼란스럽다. 연말과 연시를 가르는 기준부터가 애매하다. 일제에 의해 양력 1월 1일을 새해의 시작으로 삼는 정책이 시행된 후 우리 고유의 설이 수난을 겪으면서 연말연시는 혼란스러워졌다. 지금의 설날은 고유의 민속 명절로 복권되었으나 여전히 그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새해 인사는 양력 1월 1일부터 하지만, 설날이 되면 절이라는 전통의 예를 갖추 새해 인사를 다시 올린다. 이것을 빠뜨리면 뭔가 서운한 상황이 연출되고 만다. 1월 1일부터 새해로 바뀌지만 구정이 되기 전까지는 새해가 아닌 기묘한 립보의 시간이다. 우리가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되는 시점이 달력이 바뀌는 때인지 떡국을 먹을 때인지도 불분명해서, 립보의 시간에는 자신이 몇 살인지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 시간에 태어난 사람들의 사정은 더욱 딱하다. 나이 계산은 보통 양력을 따르기 때문이다. 가령 새해 1월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2013년에 태어난 사람들과 같은 동갑이 되지만, 띠 동갑은 2012년생들이다.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 연말연시의 기준점 때문에, 우리는 언제 지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아야 할지 엉거주춤하며 연말연시를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혼란스럽거나 말거나, 연말연시는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시기이다. 지난 한 해 무엇을 이루었는지 결산하고 반성하는 시기.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악연은 잊고 지나가기로 한다. 망년회 혹은 송년회를 통해 한 해의 인간관계까지도 결산을 보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이 새해의 계획을 적을 다이어리를 구입하는 일이다. 물처럼 흐르는 시간에 마다가 있을 리 없지만 우리는 바로 이 시기야말로 한 해를 계획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한다. 작년 이맘때 산 다이어리와 재작년 또 재재작년의 다이어리들이 텅 빈 하얀 속지를 감추며 꽂혀 있어도, 새 다이어리의 유희를 이길 수는 없다. 올해엔 기필코 다이어리를 충실히 채워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긴 시간을 들여서 매대에 쌓여 있는 신상들을 일일이 쓰다듬고 펼쳐본다. 저마다 다르면서 또 같은 다이어리들. 최종 결정은 작년에 선택했던 것과 거의 흡사한 다이어리를 집어 드는 것으로 마무리되곤 한다. '새해를 보람차게 보내겠다며' 다이어리에 계획들을 적는 것, 매해 솟구치는 이 야무진 욕망은 도무지 저항할 수가 없다. 설사 용두사미 식으로 작심삼일 시행하다 끝날 계획이라 해도 그러하다. 눈발처럼 깨끗한 빈칸마다 새롭게 펼쳐질 앞날의 기대를 그려넣는 그 순간의 즐거움과 희망만으로도 새 다이어리의 효용은 충분한 것이다.





실제로 학생 시절 계획이론 수업에서는 ‘계획은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지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라고 배웠다. 내가 못한 인간이어서 계획을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획의 속성이 본래 그런 것이라 한다. 자충적 계획과 자멸적 계획이라는 것이 있다. 계획 그 자체 때문에 계획이 이루어지거나, 계획 그 자체 때문에 계획이 어긋나게 되는 경우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식전문가가 특정종목의 목표가를 상당히 높게 제시할 경우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해당주식에 투자해서 그 주가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실제 그 목표주가에 도달해버리는 것이 계획의 자충적 효과이다. 반면 정부가 낙후된 특정지역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면 해당지역의 땅값이 폭등해버려서 개발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는 자멸적 계획에 해당한다. 이런 일은 사실 인생의 순간순간 흔하게 발생한다. 그러니 정교하게 세운 계획들이 그대로 착착 지켜진다면 오히려 이상한 노릇이다. 더구나 계획은 미래에 대한 예측에 기반하는데, 우리에게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가 있다 해도 미래를 제대로 예측해낼 방법은 없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심지어는 나 자신도 매일 변한다. 그러니 계획을 고스란히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기보다 깨지는 계획에 적응해나가는 것이 인간다운 일이다.

이번 연말연시는 개인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대선이 끝나는 즉시 대통령 당선자는 인수위를 조직하고 자신이 선거운동 기간에 발표한 공약들을 보다 구체화하여 5년간의 국가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이 어떻게 운영될지를 결정하는 계획이 바로 올해 연말연시에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세워도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것은 불가능하다. 일단 우리 사회는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화, 자율화되었다. 우리를 둘러싼 국제사회도 당시보다 훨씬 복잡해졌고, 앞으로 5년 동안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한 국가사회가 훨씬 더 개방화되어 국제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이 시대에는, 복잡다단한 변수들을 모두 감안한 정교한 계획 수립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추진은 쉽지 않다. 바람직하지도 않다. 새로운 시절에 옛것을 기대하거나,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한다고 실망하지는 말자.

국가정책에서 계획의 일관성도 중요하고 계획목표를 달성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상황에 따라 이미 세운 계획이라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더 올바른 국정운영이다. 한반도대운하를 들고 나왔다가 국민의 반대에 부딪히고 계획 자체의 부실함이 드러났어도 결국은 사대강사업을 밀어붙였던 포기 없는 일관성, 저돌적인 실행 마인드는 차라리 재앙이다.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단 하나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고 더 나아지게 해야 한다는 그 가치를 붙들고 절대 놓지 않는 것이다.

개인에게든 국가에게든, 계획이란 미래를 위한 하나의 기준일 뿐이다. 시시때때로 계획에 비추어 현재를 바라보는 기회로 삼으면 된다. 환경과 나 자신에 맞춰 계획은 계속 수정되어야 한다. 계획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지금 계획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계획을 세울 가치는 충분하다. 이것이 계획의 진짜 역할이다. 그러니 이번 연말연시에는 지난 한 해의 계획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작심삼일이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집어치우고, 마음에 드는 다이어리를 하나 구해서 신나게 계획을 세워보자. 계획을 세우는 그 순간의 설렘, 그리고 자신에 대해 꿈 꿀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내 삶이 가치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계획은 소중하지 않은가. ♪

필자소개 **고은테** 대학에서 건축을 가르치는 교수, 하지만 국제 엠네스티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인권운동가도 더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정치, 사회적 사안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며 냉철한 공정함과 따뜻한 명철함이 함유된 생각과 글을 펴려하고 있다.

정선 가는 길



길옆에 있는 집들은 대체로 산비탈에 기대어 있었다. 자연과 친해지는 방법을 도리 없이 잘 알고 있는 듯한 정선으로 가는 길의 집들은 험한 지형의 한 귀퉁이에서 그 풍경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이별을 하고 있었다. 그런 곳을 지나는 여행길. 짧은 해의 거울에 일찍 산 그림자 내려앉는 골짜기, 깊은 밤이 될수록 더욱 많은 눈이 내리는 날, 어깨에 수북이 쌓이는 눈을 털어내지 않고 서 있었다.



그뿐이었지.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시간과 공간과 내 걸을 스치거나 머물렀던 모든 인연들이 무의미해져버린...: 그날은 강원도에서 폭설로 고립되어버린 날이었다. 여행을 참치 못하는 내가 문제였다. 그 여로에서 눈으로 내 눈앞의 세상, 모든 길들은 사라져버렸고 절대고독은 모든 생각을 지워버렸다. 멀리서 아득하게 보이는 불빛들은 나와 상관없는 목표지였다.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한 감정이었으므로 발목을 덮는 눈을 헤치며 걷는 것만이 내 속에 있는 눈에 빠지지 않는 방법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움이 변한 말이 그림이라 했는가. 여행은 실체 없는 그리움을 찾는 일이고, 그것을 찾는 과정에서의 결과물들이 그림일 것이며, 세상에서 버틸 힘을 주는 유일한 정신의 에너지가 그리움이라고 믿고 있는 나에게, 그리움은 눈 속에서의 고립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정신과 자세를 더욱 맑고 튼튼하게 버티게 해주었다.

멀리서 반짝이는 지상의 별빛 같은 목표가 새로 생겼다. 그러나 깊은 밤은 언제 끝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정지된 시간 같은 그 속에서 유일하게 나만이 움직이고 있었다. 눈을 감고 싶기도 했다. 그러나 가야 했다. 따뜻한 봄바람은 이 고갯길을 넘으면 있을 거라고 믿어야 했다. 그곳에 커다란 흰색의 캔버스가 있을 거라고...:

그러나 헛된 욕망만 생산될 뿐 나는 아직 세상을 꺼안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고, 누구의 눈길도 부담스러웠다. 다만, 철저한 고립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를 포기하는 일이 빨라질 것이며 그로 인해 새로운 빛을 가늠하는 일이 더욱 진실할 것이라는 믿음은 있었다.

그날, 세상을 정지시켜버린 주먹 같은 눈의 세계에서 보았던 작은 물고기들의 유영, 흔들거리며 창공을 마음껏 헤엄치던 은빛물고기 떼들, 그것은 다름 아닌 다음날 아침 맑디맑은 아침햇살 속에서 반짝이는 정선 가는 길, 사람의 집들과 아름다운 풍경의 또 다른 모습이였다. 그런 아름다운 작각의 풍경을 또 보고 싶다.

해서, 오늘도 고립을 위해 걷는다. ㅎ

필자소개 **이두섭** 연약한 들꽃, 작은 바람결 같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성의 그릇에 담은 서양화가. 상상력의 폭발적인 힘을 믿기에, 대상을 직접 보고 그리는 대신 시간이 지난 뒤 기억에 남은 이미지를 꺼내 쓰는 방식을 고수한다. 인사아트센터, 관훈 미술관, 도올 갤러리 등에서 100회 이상의 전시를 했다.

대통령제의 조건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기원했던 분이 당선됐는지요? 선거라는 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치열한 싸움이어서 일이 끝나고 난 뒤 패자가 느끼는 허탈감이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어쩌면 선거가 끝난 후에 시민들의 마음을 잘 얻는 것이 정말 필요한 정치가 아닐까 합니다.

흔히 대통령 제도를 ‘승자독식의 제도’라고 합니다. 51:49로 이기든 70:30으로 압승을 하든 대통령에 당선된 자가 엄청난 권력을 장악하고 행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말이 대통령이지 선출된 군주의 실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4년 또는 5년마다 국민들의 신임을 얻는 과정을 거쳐 선출된다는 것이 다를 뿐,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군주가 가질 만한 권력을 행사하는 점은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대통령제가 군주와 뭐가 다를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대통령이 군주와 다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대통령제는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한 민주국가에서 가능한 제도입니다. 권력의 기초가 국민에게 있고 대통령의 권력 또한 국민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이 대통령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왕을 모시고 살아온 국가에서 하루아침에 왕정이 무너지고 대통령제가 채택되더라도 국민들의 의식 속에 대통령을 ‘나랏님’이나 ‘임금’과 같이 생각하는 한 대통령은 양복만 입은 임금일 뿐입니다.

둘째, 대통령은 시민 가운데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되어 일정한 기간 동안만 대통령으로 봉사하고 임기가 끝나면 다시 자신의 생업으로 복귀하는 존재입니다. 장차 왕이 될 왕자로 탄생하여 왕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왕이 되면 죽을 때까지 왕으로 사는 것과 다릅니다. 그러나 선거가 부정과 돈의 힘으로 치러지면, 시민이 국민들의 신임을 받아 일정한 임기 동안만 직을 수행하는 제도는 겉데기에 불과해지고 대통령은 사실상 왕과 같은 지위에서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거나 세습하려 듭니다.

셋째, 대통령은 국회나 법원에 의하여 그 권한행사를 통제 받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있거나 법원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국가의 모든 권력을 한 손에 넣고 거칠 것 없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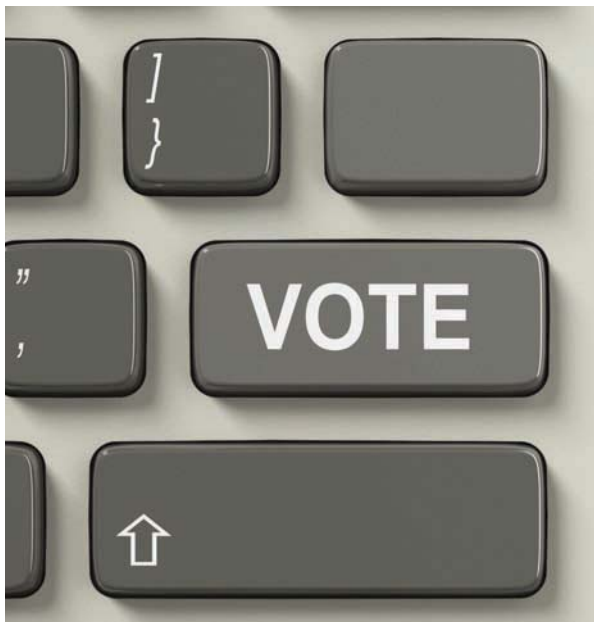
권력자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과거 유신 시대에서처럼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하다시피 하거나, 국회와 법원이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도장이나 찍어주는 기능밖에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유신시대의 법원은 대통령이 저지른 무수한 인권침해에 대해 거의 '정찰제 판결'을 했다는 비난을 듣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내용이나 진실 여부에 상관없이 법원이 내리고 싶은 형량을 선고했다는 뜻이지요.

언론의 힘과 시민의 연대가 필요한 이유

그러므로 진정으로 대통령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는 입헌국가의 우두머리가 위해서는 국민이 스스로 국가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왕정이 무너지거나 식민지에서 독립한 국가에서 대통령제가 위험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까닭입니다. 국민주권주의나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수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우리가 입은 손해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민주주의의 훈련을 할 기회를 40년 가까이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선거에 관한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대통령의 권력은 적절하게 통제되어야 합니다. 1948년 헌법을 만들 때 대통령제가 가지는 위험을 인식하고 둔 것이 실권을 가지는 국무총리였습니다. 지금도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 제청권을 가지고 있으니, 대통령이 이 권한만 존중해주면 대통령의 권력도 적절하게 제어될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면직까지 시킬 수 있으므로 그가 소신껏 일하기는 어렵겠지만요. 흔히 '책임총리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걸 대통령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고 국회도 대통령이 실력자인 정당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국회의 통제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언론과 시민의 단결된 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ㄹ



필자소개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을 가르친다.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과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자문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법은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종교의 자유, 군인의 인권 보장, 사법 개혁 등을 주된 연구 관심사로 삼고 있다.

새로움

그대는 '지겨워!', '아이, 지겨워!' 한 적이 있는가.
그것은 새로움을 찾는 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대는 '진절머리 나!', '아이, 진절머리 나!' 한 적이 있는가.
그것 역시 새로움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대는 '넌덜머리 나!', '아이, 넌덜머리 나' 한 적이 있는가.
그것 또한 새로움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없기 때문이다.

지겨워하는 얼굴은 보는 이를 맥 빠지게 하고
진절머리 내는 표정은 의욕을 떨어뜨리게 하며
넌덜머리 내는 모습은 정나미를 떨어지게 하여
마침내는 자기의 삶까지 권태롭게 만든다.
지겨워 죽겠네, 넌덜머리 나 죽겠네 하나니
세상에 이보다 못한 형상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항상 새로운 생각으로 사물을 대하고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

시간이 흐른 만큼 공간은 변하는 것.
매일 보던 풀과 나무도 순간마다 변하고
항상 보던 사람도 느끼지 못했던 점은 있게 마련.
그 속에는 너와 나의 만남의 이치가 있어
마침내는 내가 바라보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바라보는 곳에 내가 있기에
그러기에 너는 나의 너, 나는 너의 너.
마침내는 이러한 이치까지 깨닫게 되나니
이것이 바로 자기를 있게 한 인연의 작용.
만나는 모든 것이 소중하고 신기하게 여겨져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네.



이 세상에서 가장 신선하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은 방글방글 웃는 아기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 아기는 무엇을 보고 그러고 있는 것일까. 바로 천장이다. 기어 다니지 못하는 아기는 천장밖에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엄마 뱃속에서 열 달이나 지내다 나온 아기는 누운 채 보이는 천장이 새롭기에 신기하고 재미있어 방글방글 웃는 것이다.

남녀가 처음 연애를 할 때는 서로 얼굴만 마주해도 신비롭다. 그렇게 서로를 쳐다보는 눈이 반짝인다. 마치 아기가 처음 보는 사물을 대할 때 눈을 반짝이듯이. 그러나 몇 년 지나다 보면 그토록 “보고 싶어 죽겠다” 하던 부부도 지루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항상 봤다는 느낌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아무리 지난 수십 년간을 보았을지라도 보는 순간은 항상 ‘지금’이라는 새로운 순간이다. 그러므로 ‘매일 보는 또 그 얼굴’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새로운 순간에 당신을 만나고 있어’ 하고 어제보다 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을 지나면 매 순간순간이 신기해질 것이다. 그렇다. 지금 당신의 가슴속에 뛰는 맥박은 어제의 맥박이 아니라 새로운 맥박이다. 새로운 맥박을 담은 새로운 열정으로, 즉 새로움을 더한 진심과 정성을 다하는 모습은 아름답기 그지없는 모습이다. <3>

필자소개 **홍태수** 미국의 사우스베이 대학과 세계적인 학술단체인 ICUS에서 존재론을 강의하여 새로운 학문적 이정표를 제시하기도 한 교육자다. 지은 책으로는 <진리를 아는 법>, <밝은 마음 밝은 마음> 등이 있다.

자녀문제를 마음공부로 해결하다

난 아들을 항상 염려하였고 감시하며 걱정하고 괴로워하였다. 지저분하고 정리정돈 안 된 아들의 방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랬다. 그런데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정리정돈을 더 안 하는 것은 나였다. 아들은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을 낯날이 그대로 보여주었다. 부지런하고 정리정돈을 잘 하는 것은 옳은 것이며 게으르고 지저분한 것은 나쁜 것이라는 뿌리 깊은 분별심이 오래도록 나를 구속하고 있었다. 이제는 그 게으름과 지저분함, 부지런함과 깨끗함을 자유롭게 내려놓는다.

‘아들아, 난 참 행복한 엄마였음을 이제야 뼈 속 깊이 느낀다. 네 스스로 말하고 듣고 보고 느끼고 숨을 쉰다. 기뻐하고 슬퍼하기도 하며 웃고 울며 부지런했다가도 한없이 게으르기도 하다. 깨끗하고 지저분하며 예의바르기도 하고 불손하기도 하다. 아들아, 괴롭고 힘들었지. 여태 잘난 남의 아들을 마음속으로 갈망하며 살아왔구나. 네 덕분에 마음공부의 끈을 놓지 않고 여기까지 왔네. 이제는 꿈에서 깨어나려나. 이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한번 즐기면서 살아보자. 아들아, 고마워. 사랑해.’

자녀의 문제를 마음공부로 해결한 한 어머니의 글이다.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를 내 뜻대로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지만 결코 자식을 고칠 수 없다. 스스로 깨어나서 자신을 바로 세우기 전까지는 상대를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자신은 그대로이면서 아이를 변화시키려 할 때 서로가 깊은 상처를 입고 풀리지 않는 아픔을 겪게 된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식을 설득하고 변화시키려 한다. 위협도 하고 상벌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 권위적으로 억압하는 것은 부담이 되고 관계는 점점 나빠진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사라지고 서로를 보지 않으



며 각자 자신의 삶을 찾아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한다.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도 모르게 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이 이러한 문제로 갈등하고 있다.

위 글에서 어머니는 ‘아들의 지저분하고 정리정돈 안 된 방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했다. 항상 염려하고 감시하며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보기 시작했다.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자신이 더 정리정돈을 안 하며 더 게으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아들은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날날이 보여주었다’고 말한다. 어머니는 겸허하게 자기를 돌아본 후 ‘부지런하고 정리정돈을 잘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것이며, 게으르고 지저분한 것은 나쁘고 안 좋은 것이라는

뿌리 깊은分別심이 나를 구속하고 휘어잡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이제는 마음속에서 게으름과 지저분함, 부지런함과 깨끗함을 자유롭게 놓아준다. 아들의 문제만 바라보고 고치려 하다가 오히려 자신을 보게 되니 스스로 내려놓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마음을 비우는 비결이다.

자녀에 대한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니 자신이 참 행복한 엄마였음을 뼈 속 깊이 느낀다고 한다. 그러고 난 뒤 아들이 다양한 삶의 경험을 하며 아름답게 성장하는 전혀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된다. “아들아, 괴롭고 힘들었지. 여태 잘난 남의 아들을 마음속으로 갈망하며 살아왔구나. 네 덕분에 마음공부 끈을 놓지 않고 여기까지 왔네” 이렇게 고백하며 어머니는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한번 즐기면서 살아보자고 아들에게 말하고 있다. ㄹ

필자소개 권도갑 마음공부 프로그램 개발자. 원광사이버 대학에서 마음공부 방법론을 강의하고 다움카페 (cafe.daum.net/maumstudys)를 통해 인간관계의 갈등 치유에 힘쓰고 있다. 매주 월요일에는 KTV 〈엔토링 토크 시대광담 Q〉에 출연한다. 저은 책으로는 〈우리 시대의 마음공부〉 등이 있다.

박지인 매곡으로

성사의 콜라주를 하게 됐다 (1)

도올 선생님 소설(小說) 29

필자소개 도올 김용옥 선생님은 우리시대를 대변하는 철학자이자, 의사, 예술가, 교육자입니다. 고려대학교, 한국신학대학, 국립대만 대학, 일본 동경대학,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하버드대학, 원광대학교 등지에서 수학했습니다. 최근에는 동양문명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고경(古經)을 우리나라 젊은 세대를 위하여 한글역주하는 작업에 몰두하시는 중입니다. 『논어한글역주』 『효경한글역주』 『대학·학기한글역주』 『중용한글역주』 『맹자한글역주』가 이미 출간되었고, 현재 『노자한글역주』 작업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최근 선생님의 저서 『사랑하지 말자』는 2012년 대선정국에 던지는 정론으로서 이 땅의 청춘을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베스트 셀러의 선두를 달리는 이 명저는 우주로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선생님의 사상의 전모를 담고 있습니다. www.hooz.com은 인터넷 도올서원입니다. 선생님의 육성이 울려 퍼집니다.

- 本誌사진 구분창 -

20세기 서양철학의 위대한 하나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 1889~1951의 명저 『트락타투스Tractatus Logico-Philosophicus』에 러셀Bertrand Russell, 1872~1970이라는 당대 최고의 철학자가 서문을 썼는데, 러셀은 그 서문 때문에 두고두고 욕을 먹는다. 근본적으로 비트겐슈타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노가리”를 풀었다는 것이다. 러셀은 그 서문을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고 있다: “논리의 어려움과 반박하기 어려운 설說의 기만성에 관하여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한 설이 틀렸다고 하는 결정적 단서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그 설의 정당성을 확고하게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명백하게 틀리지 않은 논리의 이론을 구성한다는 것은 실로 엄청나게 어렵고도 중요한 성취물이다. 이 성취의 업은 비트겐슈타인의 저작에 돌아간다. 심각한 철학자라면 누구든지 이 성취를 외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확실히 좀 박한 언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더 근원적인 문제는 러셀이 그의 제자 비트겐슈타인이 『트락타투스』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의 혁명성을 근원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두 사람은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가 근원적으로 상이했다.

나는 러셀의 우愚를 범하는 것을 평생 금기로 삼아왔다. 그래서 타인의 저작에 서序하는 것을 삼간다. 그런데 나의 경우는 러셀이 비트겐슈타인의 저작에 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러셀의 저작에 비트겐슈타인이 서하는 꼴이다. 살아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학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월운대사月雲大師께옵서 진속의 초라한 후생에게 서序를 부탁하시니 감히 거절할 수도 없는 일,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아니 될 숙제를 떠맡고 말았다. 동경대학東京大學 동문 후학인 연세대학교 철학과 의 신규탁 교수가 말을 건네길래 미적미적하고 있었더니, 대사께서 나의 한양 한복판 서재書齋로 직접 오시겠다는 것이다. 천하에 그런 비례非禮를 어찌 앉아서 뒤집어줄 수 있으리요? 나는 부리나케 궁둥이 털고 광릉 봉선사로 나섰다. 2011년 6월 12일 황혼녘의 일이었다.

어른을 찾아뵙는데 맛있고 연한 쇠고기 안삼이라도 몇 덩어리 사가지고 뵙고 싶었지만, 육식을 금하는 승문인이라 사가지고 갈 청정한 무엇이 잘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최근에 내가 펴낸 『논어한글역주』 한 질을 들고 떠났다. 그리고 그날 상황이 무엇보다도 시간이 여의치 못했다. 다경실茶經室에 들어서자마자 넘죽 옆드려 큰절을 올리니 맞절로 받아주신다. 나는 『논어』 첫 장에 난을 치고 “학여불급學如不及, 유공실지猶恐失之”라고 썼다. 이것은 공자의 말인데 나는 실제로 스님을 뵈으면서, “공부를 한답시고 아무리 배움의 길을 따라가도 스님과 같은 높은 학경學境에는 영 미칠 수 없습니다”라는 뜻으로 쓴 것이다.

스님께서는 내 책을 받으시면서, “젊은날에는 누가 책을 들고 오면 한없이 기쁘기만 했는데, 이제 늙고 보니 누가 책을 가져오면 미지능행未之能行, 유공유문唯恐有聞이로소이다. 선생의 이 두꺼운 책을 다 못본다고 책하지 마옵소서.”

나는 야코가 꼭 죽고 말았다. 『논어』 중 일 구로 맞장뚝다가 『논어』 중 일 구로 호되게 얻어맞은 꼴이 된 것이다. 공자의 제자 중에 우직한 실천궁행파로서 이름이 높은 자로子路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자로는 좋은 가르침을 듣고, 아직 미처 실행하지 못했으면, 행여 또 다른 가르침을 들을까 두려워하였다는 것이다. 나는 일기를 쓰는 버릇이 있는데, 일기를 못쓴 채 하루가 지나가고 또 지나가면 괜히 날 지나가는 것만 원망스러워진다. 그럴 때면 자로 생각이 난다.

스님께서 자로를 인용하시는 그 품새에서 나는 즉각 두 가지 외경심에 사로잡혔다. 첫째는 스님의 학문을 대하는 엄밀성이다. 책을 읽으면 정확하게 꼼꼼히 읽으신다는 것이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다음 책을 손에 안 잡으시는 것이다. 자로보다도 더 우직한 실천이 몸에 배어있으신 것이다. 스님이 거하시는 “다경실茶經室”에는 “다茶”가 없다. 보통 스님들처럼 차를 드시면서 담소하시는 시간을 삶에서 제외시켜 버린 것이다. 오직 “경經”만이 그 분 삶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생애 한순간도 책을 떠난 적이 없으시다고 주변 사람들이 말한다. 그리고 연로하신 이 날까지 매일 밤 자정이 넘도록 불이 켜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 일찍 주무시라고 권하면, “죽으면 실컷 잘 텐데 뭐 잠이 급하노”하고 계속 독서에만 열중하신다고 한다. 이 날도 내가 온다니깐 “난 차 대접할 줄 모르는데, 커피나 한 잔 타드릴까”하고 걱정하셨다는 것이다.

둘째는 조선팔도 이 땅에서 그 누가 스님처럼 당장當場에서 자로를 가지고 도율을 제압하는 자가 있겠냐는 것이다. 불경佛經에 대한 지식을 운운하기에 앞서 월운 스님은 유학儒學이 몸에 젖어있는 한학漢學의 대가였다. 어릴 때 이미 사서오경四書五經을 다 암송하신 것이다. 출구성장出口成章이라, 입만 뿔끗하면 다 줄줄이 한학의 문장이 새어나온다. 내가 책을 드리니, 당신도 당신께서 최근 직접 편하여 내신, 『화엄경청량소초華嚴經清涼疏鈔』에 관한 책들을 산더미만큼 나에게 건네주신다: “군자는 이문회우以文會友하고 이우보인以友輔仁이라 했으니, 나도 선생께 건넬 것이 이것밖에 없소이다.”

조선의 불교경학의 정맥인 『화엄華嚴』에 대한 깊은 사랑과, 그 정맥이 당신의 육신과 함께 문힐 것을 염려하시는 애절함이 그 책들에 배어있다. 그 책들이란 화엄종 제4조 청량淸涼 정관澄觀, ?~839 대사의 『소초疏鈔』를 조선왕조시대의 스님들이 공부하면서 사기私記를 남긴, 순수 우리불교이해의 족적이다. 그것을 탈초脫草하여 배인排印한 것이다. 혹 무지한 자들이 있는 것을 옮겨적은 것에 불과한 그 비망록 같은 사기私記가 뭐 그리 대단한 것이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무지한 자들에게는 나는 대나무 방할이 아닌 옥설의 방할을 안겨주고 싶다. 학문이란 본시 “구라”가 아니다. 아무개 회갑논총 운운하면서 구라를 풀어 놓은 논문모음집 수천 권이 나와도 이 땅의 학문은 발전하지 않는다. 학문은 사실에 기초하여야 한다. 학문은 “설說”이 아닌 기초로부터 쌓아올려져야 한다. 과거 고승들의 사라져가는 사기私記를 탈초하는 작업이란, 한 장 읽어내리는 어려움이 논문 일천 페이지 쓰는 것보다 더 난감한 일일 수도 있다. 그 구질구질한 옛 창호지에 쓰인 깨알 같은 초서들을 읽어내어 현토까지 달아 다시 배인하는 과정이란 무한히 많은 집들이 세워질 수 있는 튼튼한 기반공사를 다지는 작업이요, 학문의 가장 높은 경지에 간 사람의 총명한 예지睿知와 밀찰密察의 명변明辨과 헌신적인 독행篤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한학에서 탈초는 가장 난해한 작업이다. 월운 스님은 그 몸뚱아리가 통째로 경전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사기私記를 구하느라 면박을 받으면서도 여기저기 다니신 그 고초의 역정은 좀 듣기가 민망했다. 하찮은 것도 누가 찾으면 귀한 줄 알고 움켜쥔 뿐 내놓질 않는 것이다. 다행히 복사기가 있는 문명의 시대라 그러저럭 사본을 구하셨다고는 하지만, 무소유를 실천해야 할 스님의 신분이라면 임자를 만난 마당에는 그런 문헌은 가까이 헌납해야 했을 것이다. 결국 움켜쥐고 있다가 도둑맞고 만 사례가 허다한 모양이다. 쫓쫓!

사기 복사본 뭉치를 천정 소반에서 한 손으로 훌쩍 내려놓으시는 가벼운 몸놀림이 무림 고수의 초식 같다. 아마도 강호를 유람하시며 무술을 익히셨다면 무림의 종장이 되셨을 것이다. 도저히 83세의 노인이라 말할 수 없는 날렵함이 일거수일투족에 배어있다.

스님과 나와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다. 나도 저술이 70권을 육박해가니,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시간으로 치면 스님과 나는 막상막하일 것이다. 그런데 나는 완벽한 컴맹임에 반하여 스님께서는 “286”시절부터 꾸준히 숨쉴을 닦아온 컴퓨터의 명인이라는 사실이다. 나는 장안의 한복판에서 아직도 과거 만년필 한 자루와 벼루로만 살아가는데, 스님께서는 광릉 수림의 암자 속에서 인터넷의 광속으로 광활한 우주를 소요하시는 것이다. 스님께서는 나보다 훨씬 더 시대를

아방가르드적으로 살아가시는 “컨템포러리맨”인 것이다. 승문에 본인만큼 한학에 능한 자가 귀하다보니 오식이 너무 심하여 본인이 직접 교정·편집까지 다 수행하시는 수고를 아니 하실 수 없는 모양이다. 그 문학問學의 철두철미함 때문에 본의 아니게 컴퓨터 도사가 되신 모양이다. 그래서인지 스님의 문장은 고취의 객끼가 없다.

“왜 하필 『인본욕생경人本欲生經』을 번역하셨습니까?”

“일본사람들 국역일체경 속에도 『인본욕생경人本欲生經』은 들어있지 않아요. 경經이 되기에는 문투가 너무 어수룩하다고 생각한 것이겠죠. 무엇보다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내가 동국역경원에 있으면서 온갖 경전을 다 읽어보았지만 이것처럼 이해 안되는 경전은 없었어요. 물론 완간된 우리 한글대장경 속에는 이 경전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읽어보면 더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이해 안되는 경전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요. 이해가 되도록 만들어야지요. 역경원장 노릇할 때에는 하두 일이 많아 엄두도 못냈지만, 소임을 내놓고나서부터는 이 작업에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도안道安 법사의 서序와 주註가 극히 절약된 언어이지만 이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실마리가 되었지요. 도안 법사의 깨우침이 없었더라면 영원한 미궁을 헤멜 뻔 했지요.”

내 제자 중에 김현金炫이라는 우수한 학인이 한 명 있다. 요즈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사학도나 문학도나 철학도나, 방송작가, 소설가, 교양인, 누구나를 막론하고 조선역사를 알고 싶어 하면 신세를 지지 않을 수 없는 위대한 명작이 하나 있다. 『조선왕조실록씨디롬』이라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전체가 유려한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고 그 우리말 번역 전체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있다. 다각적인 방면에서 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활용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높다. 『조선왕조실록씨디롬』이 나오면서 선부른 역사 관련 “방언”들이 사라졌다. 사극의 자막도 정밀해졌다. 이 작업은 단 한 사람의 발상과 실력에 의하여 시작되고 완성된 것이다. 단 한 사람, 그 단 한 사람이 나의 제자 김현이다. <다음 호에 계속>

홍범도는 자유시 참변에서 살아남았다. 대참사가 일어나기 전날 홍범도는 그 기묘한 분위기를 알아차리고 자유시를 뒀다. 그와 그의 부대는 1922년 1월 이르쿠츠크에서 소련 적군 제5군단에 배속된다. 홍범도는 제2연대 제1대 대장으로 임명된다. 그리고 그 직후에 1월 21일부터 2월 2일까지 모스크바에서 개막되고 레닌그라드에서 폐막된 코민테른 주최 “극동공산주의혁명조직 제1차 대회”에 한인대표의 한 사람으로 참석하여 레닌의 접견을 받고 모젤권총과 금화 1백 루블을 상으로 받는다. 그는 항상 레닌이 준 모젤권총을 자랑스럽게 허리에 차고 다녔다. 일본군이 “뛰는 홍범도, 나는 홍범도”라



하여 가장 무서워했던 웅장 홍범도는 1937년 10월 초에는 결국 다른 한인들과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의 시르다리아강 근처 잔 아리크 촌으로 강제이주 당하였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배려로 환경이 좋았던 크즐 오르다로 옮겨 정착하게 된다. 그는 크즐 오르다의 한인 극장의 기도를 보면서 살았다. 아이들이 동전을 던지면 먼 거리에서도 권총으로 작은 동전을 명중시키곤 했다한다. 극장에 연극에 사용되는 빌로드 천을 훔치려고 들어온 카자크 깡패들과 75세 노구로 실갱이를 벌였는데 왕년의 웅장인들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심하게 내상을 입고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떴다. 임종 직전에도

第 一 卷

在 連 江 縣 以 外 走 多 步

元 年 人 以 米 爲 食



庚 子 年 上 月



洪 範 圖

月 上

錢 下 至 下



돼지를 잡아 호탕하게 친구들과 술상을 같이하면서 왕년의 호시절을 회상하고 조국의 안위를 걱정하였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그는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했다. 1943년 10월 25일, 그는 이국에서 영면하였다. 2004년 가을, 한인 러시아 이주 140주년 기념행사가 한창일 즈음, 어느 할머니가 홍범도의 사진을 들고 연해주 고려신문사로 찾아왔던 것이다. 그 할머니가 바로 홍범도의 손녀 딸리나 니콜라예브나였다. 딸리나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홍범도의 기상! 딸리나는 "제두스카"를 연발했는데, 그것은 "할아버지"라는 의미였지만, 그 어감은 극도의 외경심과 존경심을 표현하고 있었다. 딸리나는 한국말이 매우 서툴렀지만 놀랍게도 자기 의사를 전달할 실력이 있었다. 그리고 어투가 그 할아버지를 방불케하는 장엄미가 있었다. 홍범도가 딸리나의 가슴에 새겨준 자기 삶의 좌우명은 다음과 같았다. 1) 잘못을 안 저지르는 사람은 없다. 오직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잘못이다. 2) 남의 말을 들어서 사람을 평가하지 마라. 오로지 자기 판단에 의존하라. 남을 나쁜 놈이라 말하는 그 자가 나쁜 놈일 때가 더 많다. 3) 과묵하라. 말을 옮기지 말라. 4) 비밀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5) 약한 자를 항상 도와주어라. 아마도 이것은 홍범도가 자기부대를 운영한 철칙이었을 것 같다. 할머니는 나에게 이토록 추상적인 명제들을 정확히 우리말로 전달해주었다. 석별의 시간이 다가왔다. 딸리나 할머니도 아쉬운 듯 문밖에 앉아 날 배웅했다. 멀어져가는 그녀의 모습이야말로 홍범도가 초기 항일투쟁 거점으로 삼았던 할경도 삼수갑산의 웅장한 자태와도 같았다.

PUBLISHING

발행인 겸 편집인 현철호

EDITORIAL

편집장 정유희

에디터 김은성, 임연두

DESIGN & PHOTOGRAPH

디자인 Mayday Graphic Studio 디렉터 정유희, 전사십 그래픽디자이너 전지현

포토 제이콥팩토리, 신승희 광고디자인 박주희, 양진아 진행 성소영

REVISER

교정 강은하

월간 <해피투데이>

등록일 2010년 2월 4일 등록번호 도봉 라 00016 발행일 2012년 12월 10일 발행처 ㈜해인식품-네체치킨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4동 16-1 전화 02-6919-3067 출력 및 인쇄 3P 판매대행 동연출판유통

월간 <해피투데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모든 저작물은 허락 없이 재배포 및 무단전재를 할 수 없습니다.

*<해피투데이>는 ㈜해인식품-네체치킨에서 발행하는 문화 매거진입니다.

*<해피투데이>에 게재되는 외부 필진의 기사 또는 칼럼 등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에디터 후기

누군가 내게 이런 말을 한 적 있다. “좋은 답을 얻고자 한다면, 네가 먼저 좋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 말은 내게 마치 도덕 교과서의 한 구절처럼 들렸다. 그런데 1월호 <해피투데이>를 만들면서 저 한 마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좋은 잡지를 만들고자 한다면, 편집진의 탁월한 안목과 책에 대한 애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는 인터뷰에도 닮았던 생각이 든다. 인터뷰어는 인터뷰이의 이야기에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이되, 인터뷰이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질문을 펼쳐야 한다. 좋은 질문을 고르기 위해 가열차게 고민하고, 성실하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해피투데이>와 함께 뛰고 싶다. 내 삶의 활력소, 찬양해 마지않는 최느님♥도 물론 함께~ 임연두

신년호를 만드는 내내 ‘잔정의 컬러풀한 세계’에 대해 생각했다. 태생이 무뚝뚝한 나는 밤샘 마감을 하다가 소파에서 쪽잠을 붙인 내게 “발이 나왔네”라며 이불을 끌어내려 덮어주는 산배님, “저녁밥은 오른쪽으로 씹었어, 왼쪽으로 씹었어?”라고 물어주는 친구 앞에서 어쩔 줄 몰라 그저 가만히만 있었다. 하지만 추운 밤이 되면 다정했던 그 순간을 홀로 여러 번 곱씹었다. ‘너는 누구냐’고 묻기 전에, ‘밥은 먹었냐’고 묻는 관계를 앞에서 신입생처럼 설레는 이 마음. ‘잔정’ 같은 잡지를 상상한다. ‘당신의 목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과 꿈은 안녕하냐’고 한 달마다 묻겠습니다. 김은성

화급을 다투며 몇날 며칠 <해피투데이> 작업을 하면서 계속 떠올라졌던 풍경은 청신한 공기가 풍성하게 고여 있는 숲이었다. 마감 날짜가 사람을 긴박하게 만들수록 요산요수(樂山樂水) 거닐며 자연에서 에너지를 얻는 내 모습이 신기투처럼 그려졌다. 잘 차려입은 문화가 남발되는 이 시대에 보다 자연스럽고 잘 익은 열매처럼 실한 문화를 전하고 싶다. 이 한 권을 마주하며 숨 한 번 크게 들어 쉴 수 있으면 좋겠고, 미더운 사람들,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로부터 작게나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잡지가 안달복달하는 삶에 ‘원표’가 되어 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함께 고생한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정유희



www.nenechicken.com

대표전화 1599-4479



QR코드를
스캔하여
하루하루가 즐거운



잡지보다 알차고,
버라이어티보다 재밌는
무료 디지털 매거진 APP

Tapzin

네네치킨 **특별일**
농민이의 생육까지



모든 분들 행복하세요!

네네치킨의 품질 좋은 닭고기를 애용하시는 것은
한국축산농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www.nenechicken.com

대표전화 **1599-4479**